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THEME STORY

THEME STORY
아트뷰의 시각으로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밀도 있게 다룹니다.
보다 깊고 보다 넓게 확장된 세계관으로
진입하는 문을 지금, 열어보세요.

VIEW

VIEW
작가의 프레임 속 예술 세계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무대 위 재해석된
움직임으로, 때로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구축된 가상의 공간으로 변주합니다.
낯선 감각으로 공간을 유영합니다.

ART CURATOR

ART CURATOR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여정은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흥미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도록 이끕니다.

BEYOND SEONG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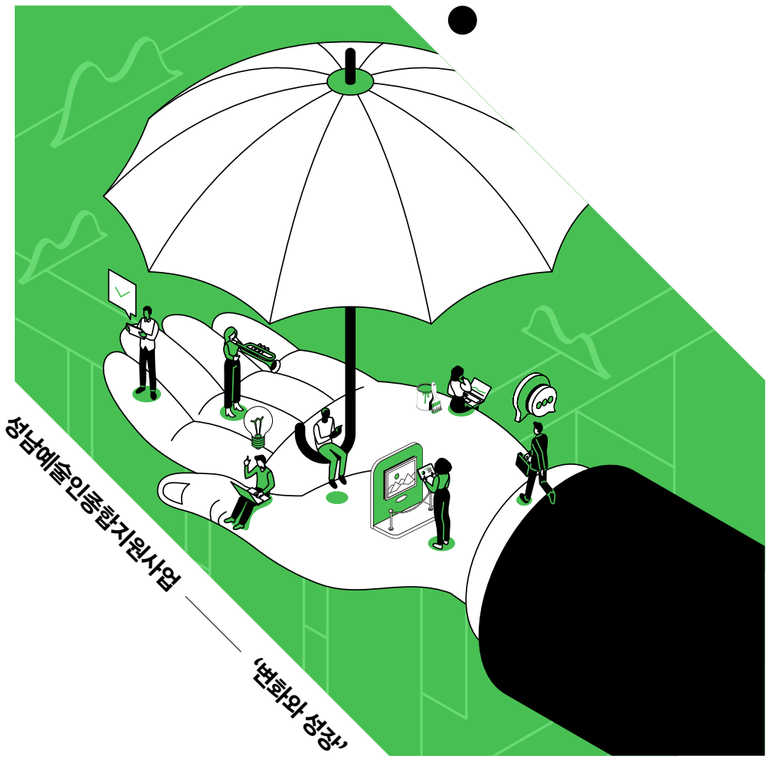
BEYOND SEONGNAM
지역예술의 새로운 정통성을 구축하고,
성남 그 너머의 본질적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과학,
과거와 현재, 예술가와 예술가 사이
경계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9 772383 983600 10+11
ISSN 2383-8361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OCTOBER·NOVEMBE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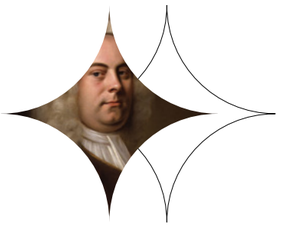
VOL.
165

ARTIST SUPPORT PROJECT



성남예술인종합지원사업
'변화와 성장'

a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깊이보기
헨델 <메시아>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스타트 뮤지엄부터 탱크 상하이까지



예술가의 작업실
차승언 작가

10

11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에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前 (주)씨너스 회장
故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중헌/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과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과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탈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前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주)유엔젤 제작감독
오풍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故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김영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악사
임헌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송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약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조남주/이규칠 미술단체 <線과 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회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故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박영일 ㈜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정림 림에이엠시 대표
윤향남 화가
주재근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
최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까치회원
장미영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부사장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개인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치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 Christoph Köstlin / DG

SEONG-JIN CHO
PIANO RECITAL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헨델	건반 모음곡 5번, E장조 HWV 430
브람스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Op.24
슈만	3개의 환상 소곡집 Op.111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13

2022. 10. 3. MON 5:00 PM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티켓 R 11만원 S 9만원 A 7만원 합창석 5만원

문의 031-783-8000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명 품
클래식
시리즈

TAKÁCS QUARTET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하는

타카치 콰르텟 내한공연

2022. 10. 4 TUE **7:30** 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구 성남시민회관)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시야장애석** 2만원 | **입장연령** 8세 이상 |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김두민 첼로 리사이틀

J.S. Bach 6 Cello Suites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2022. 11. 4. FRI. **7:30** PM | NO.**2,** NO.**4,** NO.**1**
2022. 11. 11. FRI. **7:30** PM | NO.**3,** NO.**5,** NO.**6**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구 성남시민회관)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시야장애석** 1만원 | **입장연령** 8세 이상 |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성남문화재단



ORCHESTRE PHILHARMONIQUE DE STRASBOURG
ORCHESTRE NATIONAL
CONDUCTOR AZIZ SHOKHAKIMOV
PIANO ALEXANDRE KANTOROW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노 알렉상드르 캉토로프 지휘 아지즈 쇼하키모프

2022.12.16.FRI 7:30PM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티켓 R 16만원 | S 10만원 | A 6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Contents

THEME STORY



08 **살펴보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방법 찾기
성남예술인종합지원사업

10 **스케치**
예술과 배움을 잇다
성남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14 **인터뷰**
전통의 올곧은 진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정재훈

20 **칼럼**
예술지원의 재구성,
팔길이 원칙을 넘어서
바람직한 예술지원사업을 위해

VIEW



24 **깊이보기**
'클래식 음악'과 <메시아>
헨델 <메시아>



28 **미리보기 1**
소리의 여정
타카치 콰르텟·김두민 첼로 리사이틀

30 **미리보기 2**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피아니즘
피아니스트 문지영 리사이틀

32 **미리보기 3**
디즈니의 마법 속으로
디즈니 인 콘서트

ART CURATOR



36 **깊이보기**
성남이 꿈꾸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톺아보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44 **일상에서의 디자인**
매력 있는 디자인을 찾다
우산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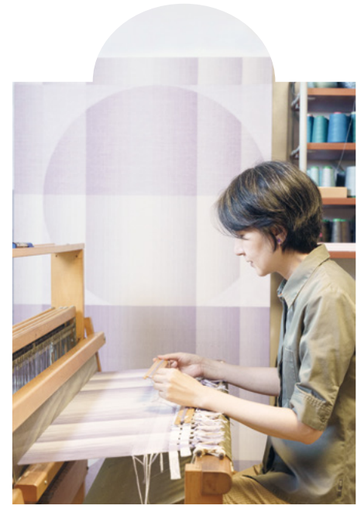
48 **기술과 예술**
여기선 물질,
저기선 비물질로 재미 보자
컴퓨터로 여행하는 또 다른 세계

52 **영화 속 클래식**
사랑과 죽음의 중첩
영화 <헤어질 결심>과 말러의 아다지에토

54 **미술 길라잡이**
분석은 꼼꼼히, 투자는 신중히
실전 투자: 분할 소유, 공동 구매, NFT 이해하기

56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상하이의 일상을 변화시킨 건축의 힘
스타트 뮤지엄부터 탱크 상하이까지

BEYOND SEONGNAM



66 **예술가의 작업실**
경계에 서서, 경계를 허물다
차승언 작가

72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76 **캘린더**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OCTOBER·NOVEMBER 2022 VOL. 165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격월간 아트뷰 2022년 10+11월호 **통권** 165호(비매품) 2022년 9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신상진 **발행인** 박경우 **편집인** 최현희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홍보팀
전화 031-783-8024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02-763-860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ARTIST SUPPORT PROJECT

성남예술인종합지원사업 ‘변화와 성장’

08 **살펴보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방법 찾기
성남예술인종합지원사업

10 **스케치**
예술과 배움을 잇다
성남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14 **인터뷰**
전통의 올곧은 진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정재훈

20 **칼럼**
예술지원의 재구성,
팔길이 원칙을 넘어서
바람직한 예술지원사업을 위해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방법 찾기

성남예술인종합지원사업



• MULTIANGLE •

성남문화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과 육성, 교류, 행정 작업까지 다각도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성장을 응원한다. 2022년 진행 중인 성남예술인종합지원사업 역시 창작 지원/역량 강화/행정 지원/네트워킹의 네 분야에 걸쳐 예술가들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긴 호흡으로 모색 중이다.

예술가들이 창작 작품을 선보이기까지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작품을 빚어내는 역량과 창의성이 단연 중요한 요소겠지만,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비용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창작 과정의 크리에이티브 비용, 제작비, 개런티, 작품 운송료, 대관료와 홍보비까지, 예술의 모든 과정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결국 많은 예술인들은 재능과 별개로 비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쟁을 뚫고 공공기관의 지원 대상과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발 빠른 정보력과 더불어 낯선 행정 용어와 지원 요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신의 예술을 기획서라는 양식 안에 잘 풀어놓는 역량도 필수적이다. 정보에 빠른 이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홀로 작업하는 1인 예술가들의 경우 네트워킹의 부재로 정보와 연대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이처럼 예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 지역예술인들이 활동 속에서 단계별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의욕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남 문화예술의 기반을 보다 풍성하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올 한 해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 타이틀 역시 유무형의 지원을 아우르는 '성남예술인 종합지원사업'이다.

창작을 위한 응원

성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단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긴 팬데믹 속에서도 치열하게 창작을 이어온 예술가들이 갇진 결과물을 온전히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직간접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는 기획이다. 공연·시각·융복합/다원콘텐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지원하는 신규 창작 분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보전을 위한 전통 예술지원 2개 부문이 중심이 된다.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총 23팀이 선정되었고, 선정 예술가(단체)는 현재 올 연말까지 작품을 선보일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창작의 역량과 영감을 더해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능력 향상, 전문성, 창작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기획의 개념 확립과 기획서 작성, 피칭 스킬 등 기획 전반에 대한 <기획 능력 향상 과정>, 온라인과 비대면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기반 예술 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과정>, 다양한 아티스트와 직접적 만남을 통해 예술적 영감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창작 역량 강화 과정>이 차례로 진행 중이다.

함께 연대하고 성장하기

서로 간의 연대와 협업의 바탕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 역시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 예술 활동 속에서 마주하는 니즈와 애환의 공감대까지, '혼자'가 아닌 '우리'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소통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교류 열망은 절실하지만 막상 그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난감한 예술가라면 <지역예술인 네트워킹 사업>에 주목하자. 성남문화재단은 '나의 예술, 우리의 예술'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인들이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허심탄회한 '판'을 준비했다. 장르와 세대, 소속 단체가 다르더라도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로 서로 이해하며 교류와 화합을 꿈꾸는 '살롱파티: SN예술살롱' 등 다채로운 소통의 장이 지난 9월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성남 문화예술인 행정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또 계약 단계에서 마주하는 법률·회계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다. 문화예술 표준 계약과 저작권, 사업 정산과 관련된 각종 세무 처리 등, 예술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만 혼자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 단계들을 속 시원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꾸몄다. 프로그램은 크게 특강, 1:1 상담, 1:多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선 권익보호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 표준 계약서 의미와 작성법, 계약 유의 사항, 저작권법, 종합 소득세와 보조금 정산 세무 처리 등 문화예술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회계 지식을 전하고, '1:1상담: 질문이 답이 될 때'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서 1:1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多 일반 상담은 동종 분야 예술인들이 함께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동 중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생생한 자문이 가능하다.

예술가들의 더 나은 성장과 창작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은 성남의 문화예술 토양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이 예술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바람직한 창작 지원과 방식, 확장에 대한 공공의 쉼 없는 고민을 통해, 예술인들이 피워낸 창작의 결과물들이 도시 곳곳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예술과 배움을 잇다

성남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8월 27일 토요일,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다양한 연령대의 청강생들이 연단 위 강연자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의 강연자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제작사 디스트릭트의 최은석 부대표. 삼성동 코엑스 전광판에 등장해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도심 속 파도 'wave'를 빚어낸 바로 그 회사다. 이날 강연은 성남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창작 능력 강화 과정: 생각의 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현대미술, 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돋보이는 성취를 이뤄낸 예술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영감과 자극을 부여받으며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 NEW

• WAVE



<창작 능력 강화 과정 : 생각의 전환> 특강.
디스트릭트 최은석 부대표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도자와 페인팅을 오가는 현대미술가 강준영 작가, 국수로 만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았던 김진만 감독, <실미도> <한반도> 등 국내 블록버스터 흥행작들의 음악을 책임진 한재권 음악 감독,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대형 폭포와 고래의 미디어아트로 화제를 모은 디스트릭트 최은석 부대표까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룩한 예술가들이 기꺼이 성남의 예술인들을 위한 특강에 나섰다. 국내 오토마타 장인으로 손꼽히는 이승항 교수와 함께 직접 오토마타를 만들어보는 세 차례의 워크숍 역시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이다. 특강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기획 능력이나 현 시대 예술 트렌드는 물론, 확장되는 예술 영역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 "역량 있는 작가의 실패와 성공 경험 속에 녹아든 사고의 깊이와 실천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와 창의성 측면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생각의 전환과 함께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기반을 설계할 수 있었다" 등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미디어 아트 작가이자 학교문화예술 강사,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정 작가는 "직접 예술가들을 섭외하는 어려움 없이 평소 관심 있던 예술 명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토마타 워크숍은 대상과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한다면 한층 차별화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서양화가 김미아 작가는 "예술인으로서 같은 장르, 혹은 타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창의적 사고는 물론, 전문가로서의 삶과 인생 경험,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동기 등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다만 전문인 대상 강좌인 만큼, 커리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짜인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창작 능력 강화 과정: 생각의 전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올해 성남문화재단이 준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창작 능력 강화 과정 > 외에도 <기획 능력 향상 과정> <전문성 강화 과정>의 세 분야로 진행되었다. 기획을 통해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예술가들의 역량을 더욱 명료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획 능력 향상 과정>, 예술가 본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과정>까지, 실제 현장의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포인트를 섬세하게 짚어냈다.

특히 기획력 관련 프로그램은 재단이 이전에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꾸준히 부정기적으로 선보여온 바 있다. 각종 공모와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문화기획자, 또 예술가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기획력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퍼워크 작업이기 때문. 다만 기획안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프로젝트 운영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금 정산 등 행정 실무들은 본업에만 집중하던 예술가들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홀로 활동하는 예술가라면 일일이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 <기획 능력 향상 과정>은 문화예술 기획의 개념과 기획서 작성, 피칭 스킬 등,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느끼던 실무 지식과 활용

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획안의 개념과 작성 기초, 운영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 정산 관련 실무, PT 기획과 전달력을 높이는 발표 스킬 등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가 강의 수강 후 실제로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강의 수강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할 정도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이다.

<전문성 강화 과정>은 팬데믹 이후 그 중요성이 대폭 강화된 비대면/온라인 기반 예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실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면 만남에 익숙한 예술가와 예술강사들에게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는 문화예술 현장에도 새로운 기술의 물결을 불러왔다. 줌과 유튜브, 메타버스까지 나아가는 갑작스러운 대전환의 시기에, 예술가들은 스스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본업의 재능만으로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벅찬 현실에 난감한 예술가들을 위해, 9월부터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전문성 강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포토샵과 프리미어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디지털 툴에 대한 접근법, 메타버스 및 NFT의 이해, 디지털 아카이빙과 전문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활용,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온라인 마케팅 등 총 6회차 강의가 이어진다.

심도 있는 배움과 확장을 기대하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중 이뤄진 중간 설문에 따르면, 올해 프로그램에는 미술(37%), 음악(20%), 무용(5%) 및 영화, 국악,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작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강좌' '참여 강사님들의 성실함과 책임감' '경험·생각 공유 측면에서 좋은 기회' 등 높은 만족도가 돋보였다. 여기에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 인원과 기회의 확대, 수업 뒤 수강생들이 서로의 작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 자리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의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의견까지, 참여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보완 사항들에 대한 의견도 더해졌다. 기관의 시각이 아닌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재단의 노력은 올해의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최재우



<창작 능력 강화 과정 : 생각의 전환> 중
한재권 음악감독의 특강 모습

SUSTAINABLE DEVELOPMENT


비대면·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과정> 수업 현장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이야기: 정선주 프리업컴퍼니 대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댄스 특화 문화예술 창작 단체 프리업컴퍼니를 운영하는 정선주입니다. 프리업컴퍼니는 춤을 좋아하는 예술인들이 진정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뭉친 단체인데요, 댄스 퍼포먼스, 대중댄스/움직임 교육, 댄스컬 제작, 공연 기획 및 연출, 생활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은 물론, 다양한 분야와의 편견 없는 협업 역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준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어떤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나요?

학창 시절부터 사랑해온 '춤'이라는 예술에 더욱 진정성을 담아 활동하면서 저희 프리업이 지닌 고유의 매력을 다양한 활동으로 선보이고, 그 과정을 더 많은 분께 알릴 수 있도록 말과 글로 지혜롭게 정리하고 싶은 바람이 절실했어요. 어렵고 답답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발전하고 싶어 김도연 강사님의 <기획 능력 향상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과 구체적인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승항 작가님의 오토마타 워크숍 역시 알찬 배움이었고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관련 분야의 활동과 역량 강화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지요?

<기획 능력 향상 과정>의 경우 꼭 필요로 하던 교육 내용이라 고민 없이 신청했고, 강의 내용은 기대보다 더 좋았습니다. 평소 예술가로서의 브랜딩에 관심이 많았지만 혹 너무 과장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강의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 분야, 혹은 영역에 갇히지 않고 저희를 당당하게 알려야겠다는 자신감도 얻었죠. 강의 참여 3주 차 즈음에 성남문화재단 예술공동체 문화기획자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서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내 의견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이전보다 확실히 명확해진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결과 공모에 합격해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성남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아직 방향성을 모른 채 헤매고 있을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과 기회가 꾸준히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THE MASTERPIECE



전통의 올곧은 진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정재훈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小木匠 이수자 정재훈에게
전통이란 여전히 살아 숨 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통의 가치에 동시대의 쓰임을 연결하는,
오늘의 삶 속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순간들.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인근에 자리한 정재훈 작가의 목공방. 공간에 들어서는 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빼곡하게 자리한 통나무와 판재들이다.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우리 땅의 나무들이 각기 다른 질감과 색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소목장에게 좋은 나무의 확보는 곧 작업의 시작이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 그만큼 많은 투자와 시행착오, 예리한 안목을 요하는 과정이다.

"막상 통나무를 켜면 상태가 생각과 달라 실망할 때도 있죠. 전국에 산이 많다 해도 각각의 나무 쓰임이 다르고 소목 분야 주종은 한정된 편이라, 좋은 나무를 구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돌배나무나 대추나무는 워낙 귀해 주종으로 쓰기 힘들고, 참죽나무도 성장에 한 세대의 세월은 필요하다 보니 점점 귀해지고 있죠."

기다림의 예술

소목장에게 나무란 곧 기다림을 뜻한다. 좋은 나무를 만날 수 있기를, 나무가 제대로 마르기를 기다린다. 목상에게서 통나무 원목을 구입한 뒤 몇 년을 숙성하거나, 필요한 두께만큼 판재를 만들어 바람이 통하도록 3년 이상 건조한다. 그 뒤 다시 공방에서 1년 이상의 실내 적응 기간을 거치니, 못해도 5년은 기다려야 비로소 제작에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시점이 도래하는 셈이다. 현재 공방에는 10여 년을 말린 나무도 있다니, 그 인내의 나날은 감히 짐작하기 힘들 정도다.

"나무를 건조한 뒤에는 필요한 두께를 감안해 재단하고 평을 잡아갑니다. 나무가 휘면 다시 말리고 평을 잡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해요. 사계절 기온차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최대한 충분히 숙성해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사포나 오일 마감 작업이 최소 4~5회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와 디자인 작업을 마친 뒤 순수 제작 기간은 4~6개월 남짓 소요되죠."

목가구 작업 중 골재, 즉 뼈대에는 예로부터 참죽나무를 주로 쓴다. 결이 곱고 부식과 변형이 적은 참죽나무는 내구성은 물론 특유의 붉은 색감이 주는 중후함도 매력적이다. 내장재로는 가래나무나 오동나무 등 10여 종의 국내산 나무를 사용하는데, 다양

하고 화려한 무늬가 많은 느티나무는 문 복판이나 서랍 등에 즐겨 쓴다. 동일한 수종도 자라난 지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지녀, 목리木理를 터득해 자연이 지닌 본연의 무늬와 특색을 잘 활용하는 것이 소목장의 미덕이다.

"감나무에 먹 형태가 든 먹감나무는 남부 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중부 지방 이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죽나무는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와 충청도 나무가 각기 색이나 강도에 차이를 지녀서,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붉고 단단한 색의 표현이 필요할 때에는 전라도나 경상도, 조금 연하면서 옹이가 적고 깨끗한 느낌을 위해서는 강원도 나무를 사용하는 식이죠."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나무를 다루는 목장은 대목장과 소목장으로 나뉜다. 집이나 사찰 같은 건축 구조물을 짓는 대목장, 그 구조물 내부를 채우는 가구 등 세간을 만드는 장인이 소목장이다. 정재훈 소목장이 처음부터 목공예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명문대 공대를 거쳐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며 인정받는 생활이었지만, 어느 순간 미묘한 회의감이 파고들었다. 신기술을 개발하기 무섭게 뒤처진 과거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IT 업계의 숙명 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되며 가치를 인정받는 결과물에 대한 갈망이 자라난 것이다. 고민의 과정 속에 알게 된 소목 공예는 그의 바람에 운명처럼 부합하는 예술이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도 뭔가를 만드는 걸 참 좋아했어요. 로봇 제작자를 꿈꾸며 공대로 진로를 정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소목 공예는 재료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스스로 원했던 형태를 직접 구현해간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죠. 전통공예학교 졸업 전시에서 어느 분이 제가 만든 가구가 마음에 든다며 구입하셨는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뿌듯함이었습니다. 만듦 자체도 즐겁지만 그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쓰임 있는 물건이 된다는 보람이 커요. 생활 속에서 긴 세월 함께하면서도 작품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지녔으니까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실기 교육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소목장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그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박명배 명인 밑에서 3년의 전수 교육을 거친다. 스승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집중하던 그 순간들은 전통의 맥을 이으며



1

HARMONIOUS BALANCE



2

"현란한 곡선 없이도 투박함 없이 그 자체로 단아한 구조,
적당한 면 분할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구입니다."



3

1 정재훈, 사층탁자
2, 3 자연이 지닌 본연의 무늬와 특색을 잘 활용하는 것이 소목장의 미덕이다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치열한 담금질의 나날이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 전수 교육 1년 차에 출품한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장려상 수상은 이 길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더해주었다.

"박명배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선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전통 가구의 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딱 필요한 만큼'의 두께와 길이, 표현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말씀하셨지요. 당신께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승 의무가 있어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지만, 이수자들은 그에 얽매이지 말고 동시대에 걸맞은 새로움을 찾으라는 격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전통의 계승이란 옛것 그대로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닌, 현재에 맞는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요."

3년간의 전수 교육을 마친 뒤 2016년, 정재훈 작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합격해 이수자 자격을 수여받았다. 긴 세월 내려오던 전통을 흡수하고 때로는 변화와 재해석을 더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진화하며 '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소목장 정재훈의 두 번째 출발이 시작되었다.

균형에서 비롯된 아름다움

우리 전통 가구는 생활 공간과 사용자에 따라 조형성과 양식에 차이가 있다. 안방 가구와 사랑방 가구, 왕실 가구가 달랐고, 때로는 화려하고 때로는 담백했다. 정재훈 작가는 사랑방 가구, 그중에서도 탁자와 탁자장, 책장을 주력으로 작업한다. 사랑방이 오늘날의 거실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대의 쓰임과 용도에 걸맞도록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물관에서 옛 가구를 살펴보면 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의 두께를 지니면서도 견고하지요. 현란한 곡선 없이도 투박함 없이 그 자체로 단아한 구조, 적당한 면 분할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구입니다. 저는 이런 전통의 조형성을 모티프로 형태와 색의 다양한 변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옛 가구란 전통 한옥에만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배치해보면 오늘날의 공간에도 어색함 없이 잘 어우러진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작품의 모든 도안은 스승 박명배 장인의 오랜 가르침에 따라 1:1 비율로 직접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 컴퓨터 디자인 툴의 편리함

INHERIT TRADITION

과는 별개로, 육안으로 비례와 느낌을 살펴보기에는 실제 크기를 구현한 1:1 도안 작업이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컴퓨터 작업은 결국 모니터 사이즈 안에서 도면을 바라보지만, 1:1 도안에서는 단 1mm 차이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몇 번을 지우고 다시 그리다 보면 결국 제가 원하는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인위적인 칠을 하지 않는 전통 가구는 자연의 나무색과 무늬를 최대한 활용해 미감을 만족시킨다. 이 안에서 어떤 요소로 아름다움을 구현할지는 온전히 소목장의 몫, 대패질 방향 한 번에도 무늬와 결이 달라진다. 수종樹種이나 비례, 선의 두께 모두 소목장들의 안목과 개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다. 여러 개의 독특한 문짝 구조는 사계절의 온도차로 인한 목재의 뒤틀림을 막는 동시에 우리 가구만의 아름다운 비례미를 담아낸다.

"작품이 누군가의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기 좋은 아름다움과 실생활에 유용한 쓰임새, 긴 세월에도 변함없는 견고함을 갖춰야 하죠. 이 모든 요소는 전통 기법과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쓰임의 미학

정재훈 작가는 현재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신규 창작 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전시를 준비 중이다. 소목 분야 특성상 작품 제작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데다, 제작비는 물론 전시 이동 과정의 포장·운반 비용과 위험 부담 역시 적지 않아 선뜻 결심하지 못했던 개인전이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이런 좋은 기회들을 그동안 미처 몰랐어요. 무형 문화재 이수자이다 보니 한국문화재재단이나 국립무형유산원 등에서만 주로 소식을 접하다, 몇 년 전에야 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역사회의 더 많은 분께 전통 공예와 전통 가구의 다양한 진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로 결정이 쉽지 않아 막막했는데, 기회가 주어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재훈 작가의 전시 <나무로 엮은 우리 가구-진화>(가제, 11월 10일~2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화랑)는 우리 선조들의 가구 형태와 색감이 무엇에서 비롯했는지, 또 오늘날의 우리 생활에 어울리는 형태와 색, 쓰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변화의 산물이다. 선과 면이 공간과 어우러지는 기존 작품, 그리고 옛 사랑방 가구의 정신에 동시대의 색채를 덧붙여 되새겨보는 신작 4점 등 약 14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유의 면 분할과 비례미 속에 전통 가구의 다양한 문짝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단층장과 이층장, 소파 테이블이나 작은 콘솔처럼 오늘날의 주거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들 속에서 다양한 우리 나무들의 질감과 색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주시는 관객들이 이 작품들을 어떻게 봐주실지, 저 역시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정재훈 작가는 현재 용인 스튜디오와 성남 공방을 오가며 전시 작업에 한창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용인 작업실에서는 나무 건조와 초반 작업을, 용인에 비해 온습도 등 내부 환경이 쾌적한 성남에서는 조립과 칠 등 후반 마감 작업에 집중하는 편. 성남공방에서 주 2일 진행하는 정재훈 우드 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목공방 교육은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에게 목공예와 우리 전통의 미를 알리며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제가 만든 작품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쓰임이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분께 제가 만든 가구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동시대의 쓰임과 미감을 담아낸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과 기법이 현대에 충분히 흡수되고 융합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외에도 그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사진 **최재우**







1 정재훈 작가가 작업 중인 안고지기 책장. 여닫이문 안에 미닫이문이 들어가 함께 열리는 안고지기 구조다. 골조는 참죽나무, 왼쪽의 여닫이문은 오동나무 낙동, 우측의 미닫이문은 느티나무를 사용했다. 사계절 온습도차가 강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춰, 선조들은 가구의 뒤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면 분할을 활용했다
2 스튜디오에서 건조 중인 다양한 나무들. 감나무에 먹 문양이 드러나는 먹감나무(사진 중앙)는 주로 남쪽 지방에 분포한다. 인위적인 칠을 하지 않는 전통 가구는 자연의 나무색과 무늬를 최대한 활용해 미감을 만족시킨다
3 정재훈 작가의 용인 스튜디오

예술지원의 재구성, 팔길이 원칙을 넘어서

바람직한 예술지원사업을 위해

FOR ARTIST ONLY



지원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기관의 담당자로 일하면서 지원사업을 설계·실행하기도 했고, 지금은 각종 사업의 심사와 컨설팅·멘토링 등으로 엮여 있으니 여전히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예술가들의 창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술이 시민 사회 일반과 동떨어진 이상한 혼잣말이 아니라 많은 이에게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충격을 안겨줄 수 있을까. 예술이 도구화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쓸모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걸까. 당연하게도 이 질문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단기간에 종결될 만한 것도 아니다. 공공의 예술지원사업이 운영되는 한, 계속해서 던져지고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물음이다. 이 글은 앞의 질문들에 대해 그간 고민했던 최소한의 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정산보다 중요한 것

예술가들은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예술가나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이 문화 정책에서 한참 후진국인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예술가들의 불만에 이유가 없지는 않다. 소액다건의 예산은 지역의 정실주의와 엮여 '예산 나눠 먹기'라는 시선에 여전히 시달린다. 생활문화정책의 전면화로 전업 예술가와 생활 예술인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현장에서 생기는 잡음도 여전하다. 가끔은 세대에 따른 지원사업의 사각 지대라며 불평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다. 청년 예술인이나 원로 예술인 지원 트랙이 생기면서 40~50대 중견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불만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의 절대다수는 지원의 형식과 방식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지원금의 액수에 비해 요구하는 절차와 과정, 서류 작업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산의 어려움은 거의 모든 예술가와 단체들이 입을 모으는 고통이다. 정산과 관련해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용돈을 정산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관계자가 특수한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지원사업은 일면식도 없는 전 국민을 이해 관계자로 둔다. 돈의 법칙을 적용받는다. 실제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예술가의 자유운운하는 것은 그저 유아적인 태도일 뿐이다. 물론, 정산과 실제 효과 간의 간극을 생각하면 이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정산 없이 실험성을 키우는 것 사이의 효용을 비교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 무정산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다들 잊어버렸지만, 이명박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지원사업에 대해 정산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만을 요청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 200만 원 안팎의 지원사업에 대해 과도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기관을 보면 답답해지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공공에 대한 책임은 깔끔한 정산보다는 프로젝트의 파급력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팔길이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술지원의 대원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으로 철석같이 믿어왔다.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원칙은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치며 더더욱 의심할 수 없는 원칙으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팔길이 원칙에 대한 의구심 또한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다. 먼저 지원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다. 대개 한국에서 예술의 공공지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보통 팔길이 원칙은 지원받는 예술가나 단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범위에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 단체의 민원이 기관을 흔들거나 지역 단체의 구조 문제로 기관이 무척 조심스레 지원사업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 이 경우, 팔길이 원칙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 다음으로, 기관의 역할 측면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책임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원사업 담당 기관은 공공 자금을 활용한 사업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두텁게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공자금으로 지원한 예술 프로젝트를 팔길이 원칙을 지킨답시고 현금만 입금하고 정산만 받으면 되는 걸까. 그럴 리가 없다. 프로젝트가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발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원기관은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주는 곳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관행을 벗어나는 문화예술지원 방식의 도입

지원사업의 트랙을 다변화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처럼 보인다. 전국의 모든 재단이 이제는 청년예술지원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겨우 10년 전만 해도 드물었던 일이다. 그와중에서도 관행을 벗어나는 지원사업의 설계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현황에 맞는, 혹은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들의 설계가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소액다컴'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 정산 없는 1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이 사업은 장르와 발표 형식이 자유롭다. 100만 원은 무척 작은 돈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구상을 실험해보는 비용으로는 활용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문화재단은 '바로 그 지원'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연 1회 지원이 아닌 몇 차례에 걸쳐 지원 트랙을 쪼개고 있다. 예술 활동의 구상이 1년에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시 지원 방식의 설계다.

전남문화재단의 경우 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 인구 고령화, 문화 다양성, 귀농귀촌, 청년 문제, 젠더, 정보 격차,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문화예술이 개입되는 창의적인 실험을 지원한다. 참가 자격을 전국의 문화기획자로 확장해 모집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 지원사업을 모델로 삼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에 개입하고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변화를 촉진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김해문화재단의 경우 불가사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해문화의전당의 비수기(1~3월)를 이용해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예산을 정해놓고, 신청하는 단체들에 따라 조정하며,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다만, 프로덕션 과정에서 재단의 무대 예술 스태프들과 단체 간의 조정 과정은 치열하게 거쳤다. 비수기 공연장의 활용, 지역 단체들의 공연 제작 역량 신장, 재단과 지역 단체의 스킨십 확보 등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성과가 만만찮다.

현금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의 확장성

오랫동안 예술지원은 현금 지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작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 대한 설계가 없으면, 어떤 활동도 미미한 영향력밖에 행사할 수 없다. 기획이라는 차원에서 예술 활동이 어떻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일이 필요한 까닭이다. 21세기를 전후해서 예술 활동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 영역이 주목받고 지원 영역에 함께 포함되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관객들을 모으고, 작품이 현실화되는 조건의 전후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완성된 작품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이나 쇼케이스 등 과정에 대한 지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예술 단체들이 모두 경영의 달인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규모가 생긴다면 그에 맞는 전문 기획자와 마케터를 고용해서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작은 규모에서도 꼭 필요한 홍보나 단체 운영의 노하우가 있다. 이에 대한 지원 트랙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지지가 될 수 있다. 작품의 생산·유통·환류 과정 전체에 대한 지지와 조율,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지지하게 되는 구조 창출,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정립 등이 연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서 예술인으로, 그러나 결국 창작 지원!

문화정책의 큰 흐름 중 하나는 프로젝트 지원에서 예술인 지원으로의 확장이다. 프로젝트의 열매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대전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와 창작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선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은 결국 지역 예술인(단체)의 역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양과 질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는 새로운 기법과 담론을 익히는 과정을 지원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지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향유 정책에 기울며 새로운 작품들이 잘 나오지 않는 현실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창작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작의 전후 과정에 대한 지원에 지금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

사실, 짧은 글에서 지원사업의 갱신을 위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맥락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들만이라도 지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들 사이에서, 아니, 더 나아가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들과 예술을 즐기는 시민들 사이에서 토론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예술지원사업은 몇몇 담당자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글 **안태호** 연수문화도시 총괄기획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인천 연수문화도시 총괄기획자,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예술경영> 편집장.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문화정책 및 기획 관련 일에 관여해왔다. 음풍농월, 미음완보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몇 해째 꿈만 꾸고 있다.

VIEW



24 **깊이보기**
'클래식 음악'과 <메시아>
헨델 <메시아>

28 **미리보기 1**
소리의 여정
타카치 콰르텟·김두민 첼로 리사이틀

미리보기 2
30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피아니즘**
피아니스트 문지영 리사이틀

미리보기 3
32 **디즈니의 마법 속으로**
디즈니 인 콘서트

MESSIAH



작곡가 헨델

‘클래식 음악’과 <메시아>

헨델 <메시아>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뉴뮤직룸New Musick Room에서는 자선을 위한 마티네 콘서트가 열렸다. 이 콘서트에서 헨델의 새로운 오라토리오가 초연되었다. 바로 <메시아Messiah>였다. 이 작품은 서양 음악사에서 초연 이후 연주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최초의 작품으로 꼽힌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클래식’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학자 니콜러스 케년은 <메시아>를 단순한 음악 작품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기념비이자 신화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메시아>의 연주사를 보면 과거의 음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즉 단순한 ‘서양 음악의 걸작’, 혹은 특정 종교나 종파의 음악을 초월한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이 형성된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떤 작품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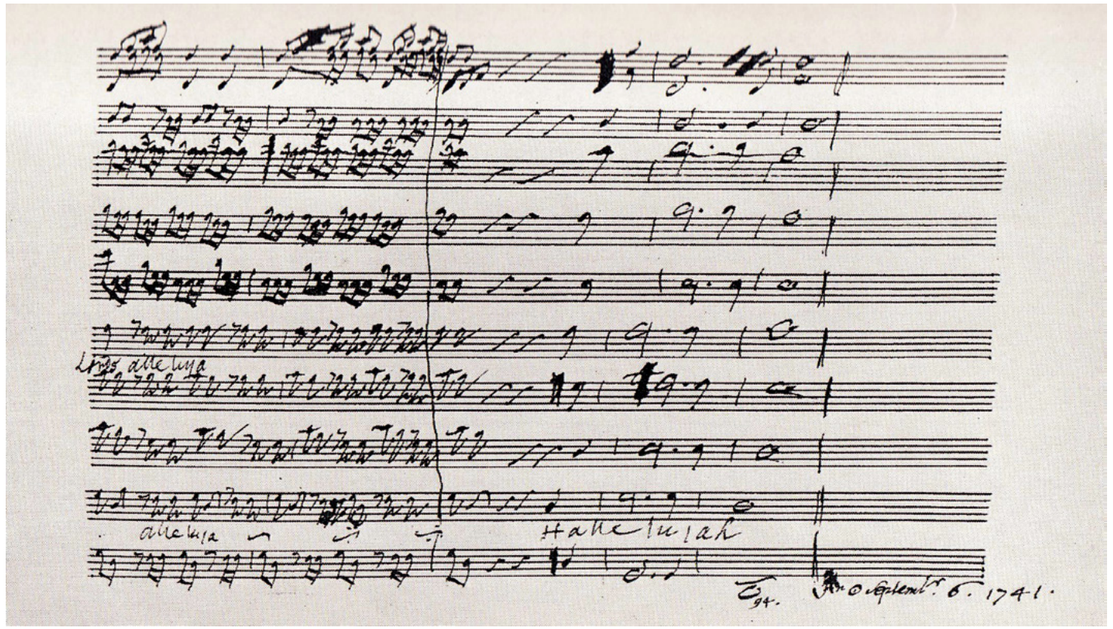


11월 17일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연주로 헨델의 <메시아> 하이라이트를 감상할 수 있다

오라토리오와 헨델

오라토리오oratorio는 종교적 대본에 곡을 붙인 일종의 극적 음악으로,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생겨나 점차 전 유럽으로 퍼졌다. 오라토리오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오페라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회와 극장,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으면서 본질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헨델은 이미 20대 초반 이탈리아에서 활동할 때 오라토리오를 두 곡 썼고 런던으로 이주한 초기1718에도 독일어로 된 <브로케스 수난곡>과 최초의 영어 오라토리오 <에스더Esther>를 썼다. 하지만 1720년대에는 오페라에 전념하느라 오라토리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1730년대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경쟁 회사의 등장, 불안정한 오페라 회사의 재정 상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오페라 시즌에 조금씩 오라토리오를 섞게 되었다. 그러면서 3부 구조, 이탈리아 오페라의 아리아 형식, 자신의 음악적 뿌리인 독일 코랄chorale과 영국 앤섬anthem 전통 등을 결합한 독자적인 오라토리오 형식을 완성했다. 헨델은 1730년대 후반까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작곡을 병행했지만 장대한 대작인 <사울Saul> 이후 점차 오라토리오의 비중이 커졌으며 1741년 이후로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완전히 포기하고 영어 오라토리오에 전념하게 된다.

독특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하지만 <메시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오라토리오와 다르고, 심지어 헨델 오라토리오 중에서도 독특한 작품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배역이나 뚜렷한 줄거리 없이 신구약 성서 구절을 편집했다는 점인데, 사실 <메시아>가 불멸의 인기를 얻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메시아>가 걸작인 가장 큰 이유는 헨델의 음악이다. 하지만 음악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그 못지않게 뛰어난 <사울>이나 <테오도라>보다도 훨씬 더 큰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사의 힘 덕분이다. 그런 면에서 성서 구절을 효과적으로 편집한 대본을 쓴 찰스 제넨스Charles Jennens의 작업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헨델은 대본 작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집필 단계부터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데, <메시아>만큼은 제넨스의 대본을 그대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빈약한 부분을 손봐달라는 *retouch the weak parts*’ 그의 요청에 따라 적지 않은 부분을 수정했다.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부분 자필 악보

<메시아>는 비록 등장인물이나 극적인 사건은 없지만 여전히 오라토리오의 본질인 '드라마'를 잃지 않았다. 다만 그 추진력이 내적이고 지적이며 명상적일 뿐이다. 1부는 메시아(구세주)가 태어나서 사람들을 치유하리라는 계시와 예언을, 2부는 메시아의 수난과 죽음과 승리(부활과 승천)를 다루며, 3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죽은 이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그린다. 독실한 고교회파古教會派 성공회 신자였던 제넨스는 당시 영국에서 퍼지고 있던 무종교주의, 이신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청중에게 신앙과 교리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으며, 가사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명상을 위한 도구로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하지 않는 청중도 끌어들일 만큼 보편적인 설득력과 매력을 갖추고 있다. 영역 킹제임스King James 성서와 성공회 일반 기도서(시편)를 텍스트로 이용한 제넨스의 작업은 대단히 섬세하고 효과적이어서 단순한 편집이나 재배열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는 일관된 서사를 위해서 1인칭 시점의 문장(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두 3인칭으로 바꾸고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로 바꾸었으며 몇 군데는 단어도 신중하게 수정했다. 드물긴 하지만 문장 전체의 뜻을 과감하게 바꾼 부분도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O Zion, that bringest good tidings*'를 '오, 그대 시온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여 *O thou that tellest good tidings to Zion*'로 바꾼 것이 좋은 예다.

헨델의 음악

물론 대본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한 핵심은 헨델의 음악이다. 헨델은 30년 넘게 오페라를 쓰면서 얻은 다양하고 세심한 표현으로 가사를 안내하는데, 중요한 단어를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가사 그리기' 기법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지금도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또한 <메시아>에는 대화나 내레이션이 드물기 때문에 레치타티보도 적은데, 이 역시 풍부한 감정과 극적인 긴장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성악 작곡가답게 독창자들에게는 기술적으로 편안하면서도 효과적인 표현을 제공했으며 합창 파트는 단순한 듯하면서도 지극히 교묘하게 짜여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다 합창 성부를 한데 모아 힘껏 터뜨리는 부분을 듣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합창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작곡가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오케스트라 역시 헨델 기준으로도-단출한 편성이지만 효율적이고 섬세하다.

초연 이후의 연주 전통

더블린에서의 <메시아> 초연은 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1743년 3월)에 이루어진 런던 초연은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 주로 성서를 가사로 쓴 작품을 교회가 아니라 극장에서 연주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었다. 하지만 174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사랑을 받게 되었고, 1749년 이후로는 작곡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 헨델은 생전에 <메시아>를 36회 연주했는데, 아리아의 음역을 바꾸거나 악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훌륭한 가수가 있으면 새로운 곡을 추가하는 등 거의 모든 연주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크고 작은 수정을 가했다. 때문에 <메시아>에는 '결정판'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으며 다양한 판본이 모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중 <메시아>가 영국 청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데는 파운들링 고아원Foundling Hospital 연주가 큰 역할을 했다. 헨델은 1750년부터 해마다 시즌을 마치고 부활절 후에 고아원 재정을 위한 자선 공연으로 <메시아>를 연주했는데 폭발적이라 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헨델은 유언으로 <메시아> 악보를 고아원에 유증했고 연주 전통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1767년에는 최초의 인쇄본 악보(풀 스코어)가 출판되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작곡가 사후에도 <메시아>는 중단 없이 연주되었고 18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영국에서는 완벽한 음악의 모범이자 '국민 음악'이 되었다. 또 독일권에서도 독일어로 번역된 대본과 확장된 오케스트라 편곡(그중에는 모차르트도 있다)으로 광범위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C. P. E. Bach는 1786년 함부르크에서 개최한 '역사적 공연'에서 유럽 오라토리오 양식의 모범으로 <메시아>를 넣었고, 1791년 영국을 방문한 하이든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헨델 기념 공연에서 천 명 이상이 연주하는 <메시아>에 압도당했다. 19세기에는 영국과 독일에서 새롭게 형성된 시민 사회와 음악 교육의 결과물인 합창 협회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그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742년 마티네 콘서트에서 서른 명 남짓한 연주자로 초연되었던 <메시아>는 대규모 합창단과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웅장한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작곡가 당대의 악기와 연주 관습을 추구하는 이른바 역사주의 및 시대악기 연주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에 섰다. 21세기에는 다시 감동적이지만 후대에 가공(혹은 확대 재생산)된 '미담'이나 작품 이면에 존재하는 반유대주의적 메시지 등 신화에 도전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압도적인 인기와 신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글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다양한 방송과 강연, 저술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전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금호아카데미, 풍월당 등에서 클래식 음악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CPBC(가톨릭평화방송) FM <이준형의 비욘드 클래식> 진행자, CBS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고정 게스트로 활동 중이다.

HÄNDEL: MESSIAH

추천 음반



존 버트, 더니든 콘소트 & 플레이어즈 *Linn*

1742년에 더블린에서 초연된 최초 판본을 녹음한 음반으로, <메시아>의 원형을 만나볼 수 있다. 오늘날 흔히 들을 수 있는 <메시아>와는 차이가 있고 편성도 간소한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



르네 야콥스,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 *Harmonia Mundi*

야콥스는 1750년판을 녹음했는데, <메시아>를 런던에서 연주하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가 반영되었으며 대중적으로 흔히 듣는 형태에 가깝다. 연주는 다소 과할 만큼 극적인 박력과 힘이 넘친다.



폴 매크리시, 가브리엘 콘소트 & 플레이어즈 *Archiv*

사실상 헨델 생전에 만들어진 마지막 판본이자 <메시아>의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파운들링 고아원 판본1754을 담고 있다. 이 판본 음반 중 가장 훌륭한 연주.

소리의 여정

성남아트리움 명품 클래식 시리즈: 타카치 콰르텟·김두민 첼로 리사이틀

올가을 성남아트리움이 준비한 명품 클래식 시리즈는 실내악과 독주의 매력에 온전히 빠질 수 있는 자리다. 리처드 용재 오닐 & 타카치 콰르텟, 첼리스트 김두민의 바흐 무반주 모음곡 전곡 무대가 차례로 이어진다.

타카치 콰르텟Takács Quartet. 대중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의 사중주단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실내악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노부스 콰르텟이나 에스메 콰르텟 등 젊은 연주자들이 국제 콩쿠르 수상 소식을 전하며 조금씩 입지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이나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서는 다르다. 일찍이 오래전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결성해 수십 년 동안 함께 활동해온 콰르텟이 무수히 많다. 타카치 콰르텟도 그중 하나이다. 1975년 헝가리 국립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 동기생들이 모여 시작한 타카치 콰르텟은 올해로 47번째 시즌 동안 연주하고 있는 유서 깊은 콰르텟이다. 영국 <그라모폰>지가 선정한 우리 시대 위대한 5개 현악 사중주단, BBC 뮤직 매거진 선정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개의 현악 사중주단 중 하나인 타카치 콰르텟은 2006년과 2016년 우리나라에 두 차례 내한한 바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에드워드 듀슨베리, 하루미 로데스, 첼리스트 안드라스 페어로 이루어진 타카치 콰르텟은 2020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새로운 비올리스트로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청중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소식이 발표될 당시 리처드 용재 오닐은 "타카치 콰르텟에 합류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예이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던 연주자인 제랄딘 왈더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에드워드, 하루미, 안드라스와 함께 화음을 맞춰갈 것을 기대하며 타카치 콰르텟이 지켜온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은 많은 대중에게 클래식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연주를 선보이는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었다. 물론 그의 음악성은 그래미 수상 등으로 확인된 바 있지만, 레퍼토리 면에서는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주로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는 현악 연주자들에게 가장 힘든 앙상블 과정으로 손꼽히는 현악 사중주 레퍼토리로 무대에 오른다.

리처드 용재 오닐을 새 멤버로 맞이한 타카치 콰르텟이 연주할 하이든 사중주 F장조, Op. 77-2와 버르토크 사중주 6번 Sz. 114, 슈베르트 사중주 13번 D180 '죽음과 소녀'는 작품 면면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뚜렷한 곡들이다. 하이든에서는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가 정립된 그 기원을, 버르토크에서는 현대에 이른 장르의 발전을, 그리고 슈베르트에서는 네 대의 악기가 만들어가는 한 편의 대서사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김두민의 바흐: 첼리스트와 첼로, 둘만이 만들어가는 여정

첼리스트 김두민은 오롯이 첼로와 단둘이 무대에 오른다. 첼리스트들에게는 성역이라 여겨지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여섯 곡이 함께한다. 이틀에 걸쳐 2번, 4번, 1번(11월 4일)과 3번, 5번, 6번(11월 11일)을 연주한다.

우리는 그동안 김두민을 한국에서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로 수석으로서 주로 독일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가 주 무대였지만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 나갔다. 2000년부터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소피 무터가 이끄는 재단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 밥티스트 뷔욤이 만든 첼로 역시 안네-소피 무터 재단의 후원 결과다.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터 비르투오지 앙상블 멤버로서 유럽, 중국, 대만, 우리나라에서 연주를 하며 꾸준히 세계 무대에 얼굴을 알렸다.

김두민이 연주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바흐가 작곡할 당시까지 앙상블에서 반주 역할만을 맡아왔던 첼로라는 악기를 솔로 악기로 처음 이끌어낸 작품이다. 이 곡들은 바흐가 쓴 이후에도 사실 그리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파블로 카잘스가 오랜 연구 끝에 이 곡들을 무대에 올리며 첼리스트들이 한 번쯤은 다루어야 할, 한 번쯤은 전곡 연주를 꿈꾸는 주요 레퍼토리로 등극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첼리스트가 되기 위해 예술학교나 음악 대학 입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작품의 한두 악장은 필수로 연주해야만 한다.

첼리스트 김두민은 최근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생활을 매듭짓고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동안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던 그의 첼로 울림을 성남아트리움에서는 오롯한 그의 소리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정소연** 월간 <스트라드> 수석기자

TAKÁCS QUARTET DOO-MIN KIM





preview

타카치 콰르텟·김두민

타카치 콰르텟
10월 4일(화) 오후 7시 30분
김두민 첼로 리사이틀
11월 4일(금), 11일(금)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구 성남시민회관)
031-783-8000

피아니스트 문지영 리사이틀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피아니즘


©Grzedzinski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음악은 흐르는 물 같다. 자연스럽고 우아하다. 그녀가 사랑하는 슈만의 추상적인 음악 어법도, 지난가을 스승 김대진 교수와 함께 듀오로 들려준 슈베르트의 순박한 음악 언어도 그녀의 손끝에 닿으면 그 우아한 연주 속에 녹아 자연스럽게 청중의 마음을 훔치고 만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무대는 독일과 러시아 낭만의 선율, 슈만과 스크랴빈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CHLOE JIYEONG MUN

문지영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2년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였다. '놀라운 재능, 집중력, 창의력'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호평 속에 그녀는 이후 10년 동안 세계의 무대를 누비며 한국 음악사에 획을 긋는 굵직한 행보를 걷게 된다.

2014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2015년 일본 다카마츠 콩쿠르 우승, 2015년 이탈리아 부소니 콩쿠르 우승으로 현재 그녀는 국내외 연주 무대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피아니스트로서 빛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문지영이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전성기가 없는 연주자'라고 말한다.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인터뷰를 다시 돌이켜보면 그녀는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반짝이는 별보다는 오랜 시간 은은히 더 빛나는 별이기를 원하는 듯하다. 2015년 부소니 콩쿠르 우승 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들떠 있지 않았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보다는 언제나 피아노와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힘든 시기가 와도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와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요. 그렇게 평생 노력하며 성장하는 음악가이고 싶어요."

그의 스승인 김대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또한 그녀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한결같음'을 꼽았다. 늘 배우려는 자세, 음악을 대하는 순수한 자세가 그녀를 특별하게 한 것 같다고 했다.

가을을 물들일 슈만과 스크랴빈의 아름다움

11월 25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리사이틀에서 문지영은 늦가을의 아름다움을 닮은 레퍼토리로 청중의 가슴을 두드린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슈만과 러시아적 쇼팽이라 불리는 스크랴빈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연주하는 슈만은 이전에 모든 연주회 프로그램을 슈만으로 선곡했던 적이 있을 만큼 그녀에게는 친밀한 작곡가이고, 스크랴빈은 2021년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과 그의 유럽>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쇼팽·드뷔시 작품과 함께 연주한 적이 있는 작곡가다.

이번 무대에서 연주하는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 Op. 13>은 주제와 변주를 통한 연습곡 양식을 극대화한 곡으로 고전·낭만 양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깊은 작품이다. 음 사이의 여백을 꾸미지 않고 느낌 그대로 표현했던 슈만의 음악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고 시적이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복잡한 그의 내면을 자기만의 음악 어법으로 표현했기에 추상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지영에게 슈만의 이런 음악적 특징은 오히려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요소였다. 그녀는 슈만의 음악은 큰 어려움 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어서 연주하기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특히 이 작품은 피아노를 통해 오케스트라를 표현하고 싶었던 슈만의 꿈이 실현된 곡이자, 고전주의 베토벤으로부터 화성의 풍부함을 이어받아 자신의 개성을 더한 작품이기에 문지영이 그려낼 슈만의 특별한 낭만이 더욱 궁금해진다.

슈만과 함께 무대에서 만나게 될 스크랴빈은 19세기 말 러시아 음악을 이끈 작곡가로, 그가 남긴 400여 곡의 피아노 작품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곡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함, 무질서를 표현한 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내뿜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문지영은 스크랴빈의 <연습곡, Op. 2, No. 1>과 <12개의 연습곡 Op. 8>,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한다. 특히 이날 연주할 연습곡은 쇼팽의 영향을 받아 12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잡한 리듬, 왼손의 분산 화음과 큰 도약 등 어려운 테크닉과 풍성한 음향을 표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음악성이 요구된다.

문득 삶의 여정 중 잠시 멈춰 서고 싶은 고요한 늦가을, 청춘의 시간이 빚어낸 그녀의 피아노 선율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낭만으로 그려간 또 다른 세상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preview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25일(금)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031-783-8000

글 **국지연** 음악 칼럼니스트

디즈니의 마법 속으로

디즈니 인 콘서트





'시공을 초월해 사랑받는'이라는 수식이
디즈니만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한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울고 웃던
관객들이었다. 디즈니를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속에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꿈의 무대, <디즈니 인 콘서트>가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온다.



preview
디즈니 인 콘서트

10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031-783-8000

디즈니 인 콘서트



10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031-783-8000

'시공을 초월해 사랑받는'이라는 수식이
디즈니만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한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울고 웃던
관객들이었다. 디즈니를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속에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꿈의 무대, <디즈니 인 콘서트>가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온다.

<인어공주> <겨울왕국>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알라딘>… 내년이면 벌써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디즈니는 세계의 애니메이션 역사 그 자체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무수한 명작들은 100년의 시간 동안 국경과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았고, 그 저변에는 아름다운 영상에 몇 배의 감동을 더해주는 음악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10월 6일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오는 <디즈니 인 콘서트>는 고전 명작부터 최근작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만날 수 있는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프로덕션이다. 대형 LED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지휘자 이병욱이 이끄는 70인조 디토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디즈니 콘서트 싱어즈Disney Concert Singers의 노래가 한 편의 뮤지컬처럼 펼쳐진다. 디즈니의 음악을 가장 탁월하게 소화하는 네이티브 싱어들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는 각각 브로드웨이·오프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등으로 활약 중인 아티스트로, 실제 애니메이션 주인공과 흡사한 목소리, 생생한 재현과 퍼포먼스로 전 세계 <디즈니 인 콘서트> 투어마다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유명 공연장을 150회 이상 누비며 사랑받고 있는 <디즈니 인 콘서트>는 2014년 첫 내한 이후 한국 관객들에게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힐링 콘서트'다. 올해 공연은 <인어공주> <라이온 킹>처럼 1990년대 개봉 이후부터 오랜 기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명작부터, 2000년대 개봉작인 <모아나> <겨울왕국>의 수록곡까지 더해져 세대를 초월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100년의 세월 동안 세계인의 가슴을 물들여온 아름다운 추억, 그 감동을 눈과 귀로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 곧 펼쳐진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탱고 피버

2022 리처드 용재 오닐 송년 콘서트 : 선물

Tango Fever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올리앙 라보토 반도네온

양인모 바이올린

그리고 음악

멈추지 않는 춤

듀대곡 쉘로

2022.12.24 SAT 5PM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주최 (재)성남문화재단 티켓 R 8만원 S 6만원 A 4만원 | 예매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인터파크 티켓 1544-8117 | 문의 031-783-8000

ART • CURATOR



36 **깊이보기**
성남이 꿈꾸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톺아보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44 **일상에서의 디자인**
매력 있는 디자인을 찾다
우산 속에서

48 **기술과 예술**
여기선 물질, 저기선 비물질로 재미 보자
컴퓨터로 여행하는 또 다른 세계

52 **영화 속 클래식**
사랑과 죽음의 중첩
영화 <헤어질 결심>과 말러의 아다지에토

54 **미술 길라잡이**
분석은 꼼꼼히, 투자는 신중히
실전 투자: 분할 소유, 공동 구매, NFT 이해하기

56 **RE:BUILT 재생건축을 읽다**
상하이의 일상을 변화시킨 건축의 힘
스타트 뮤지엄부터 탱크 상하이까지

성남이 꿈꾸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톺아보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성남시가 2023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유네스코 본부의 심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사실 국내 도시들의 ‘법정 문화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떠올려보면, 또한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 역량과 문화적 성과를 떠올려보면 성남시의 도전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공연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과 생활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정책에 미친 영향은 ‘전국적’인 것이었으며 여전히 굵직한 이정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칼튼 힐에서 바라본 도시 전경

© Shutterstock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성남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웠다. 영국 유학 시절부터 성남문화재단 <아트뷰>에 해외 문화도시 관련 글을 연재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성남의 자산과 역량이 글로벌 무대에 울림을 주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남이 그간 축적해온 경험과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이전의 가입 도시들과는 구별되는 인상적인 접근을 해주어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특별히 첨단 기술과 접목된 콘텐츠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의 역량이 성남 여타 지역의 문화적 의제들과 잘 어울리면서, 전 세계 창의도시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선정 도시들의 의무와 권리 등 주요 내용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인상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해보고, 성남시가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점들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필자는 3년 전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할 때부터 함께 준비해왔고 선정 이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에 입각해서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한다.



1



2

1 에든버러에 있는 월터 스콧 기념비 전경
2 에든버러 그레이프라이어스 묘지의 볼드모트 무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리 포터 투어 가이드

1) https://en.unesco.org/creative-cities/home
2) 이러한 이유로 유럽 문화수도 사업이나 유네스코 사업과는 별개로 주요국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도시 선정 및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9년부터 '영국 문화도시' 사업, 이탈리아는 2015년부터 '이탈리아 문화수도' 사업, 프랑스도 2019년부터 '프랑스 문화수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네 가지 특징

지역 정체성 자율적 주도성 + 시민 거버넌스 구축의 우선성 + 프로세스 (과정) 자체의 중요성 + 문화영역을 넘어 도시 생태계 겨냥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배경 및 지향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은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 연대 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유네스코는 자기 도시의 창의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려는 야심찬 도시들을 대상으로 문학·영화·음악·공예·디자인·미디어 아트·음식이라는 7개 범주에서 신청을 받고,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은 우선 각국에 존재하는 유네스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여부를 판단받는다.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문학' 부문의 에든버러였는데, 사실 에든버러는 유네스코와 함께 이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참여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2021년 현재, 90개 국가에서 총 295개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활동하고 있는바, 이 도시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지역적인 수준에서 창조성과 문화 산업을 도시 발전 계획의 중심에 놓는 것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발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집약된다.[1]

2004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이 이루어졌지만, 도시 기반의 문화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는 1985년 '유럽 문화수도'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영화배우 출신의 그리스 문화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르쿠리는 유럽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공통의 역사와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유럽인들의 연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 문화수도 사업을 제안했다. 1985년 아테네, 1986년 피렌체, 1987년 암스테르담, 1988년 서베를린, 1989년 파리, 1990년 글래스고 등을 필두로 현재까지도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 '문화수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처음에는 저명한 도시들의 홍보성 이벤트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다양한 규모와 특성을 가진 도시들이 재생과 쇄신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도시들이 자신들의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위상, 예산 등을 얻게 되는 것은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유럽 문화수도'1985~나 '유네스코 창의도시'2004~ 사업 등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정책 사업을 여럿 추진해왔다. 가령 참여정부 2003~08에서는 광주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등이 지정된 바 있고, 박근혜정부2013~17에서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별로 문화적 가치와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지난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2019~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설계, '시민거버넌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초점, 문화부문을 넘어서 도시 생태계 전체를 지향하는 것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 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혜택, 권리, 그리고 의무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주목이 이루어진 데에는 국가 중심의 세계관이 다양해지고 세분화한 것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별히 아시아의 경제적·산업적 부상과 함께 유럽의 많은 산업 도시들이 쇠락하면서 도시의 운명을 재사유하는 과정에서, 유럽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산과 문화적 자원이야말로 최

고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문화'도시 흐름이 '창의'도시 운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식집약적 경제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 또는 주민들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작용했다.[2]

그렇다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이 그와 유사한 많은 문화도시 또는 창조도시 사업들과 차별점을 갖는 지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UN 가입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특정 국가나 대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아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기존 가입 도시들과의 긴밀하고 항상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순간,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활동해온 기존 도시들의 역사와 현황은 물론이고 계획 중인 모든 사업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곧바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 7개 분야별로 임원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주도하는 자치 시스템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도시들은 금방 다른 도시들의 주목을 받게 되며,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단시간 내에 수많은 협업 기회들을 확보하게 된다.

검증된 역량과 유사한 관심을 공유한 멋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배우고 공유하고 나아가 이끄는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입 이후에는 추후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권한 역시 보유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타 도시들의 활동 보고서를 확인하고 영감과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과 권리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로서의 의무를 완수할 때에만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은 장기간의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다.[3] 단순히 그럴듯한 역량을 뽐내고 도시 안팎의 인정을 획득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적인 과정'에 꾸준히 임해야 하며 '앞을 내다보는 접근'을 도시 행정에 접목해야 한다. 예컨대, 해마다 개최되는 연례 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적 미팅에 참여하는 것, 네트워크에 가입된 동료 도시들과 지식 및 정보 공유에 앞장서는 것, 2년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활동을 유네스코에 알리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가입 신청서에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세 개의 정책 사업과 글로벌 관점을 갖춘 세 개의 정책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바, 이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할 의무 역시 가입된 도시들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도시들 중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이후 특별한 활동을 거의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동료 도시들 사이에서 전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타이틀 획득'에 머물면서 유네스코의 이름이나 로고 사용에 만족할 뿐,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실제로는 전혀 효용이 없는 자원 및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성공적인 창의도시들의 공통점, 지역혁신 체계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취임 이후로 창조산업, 창조경제, 창조도시 등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창조성 담론'의 시대를 연 영국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에서도 주요한 성과들을 많이 남겼다. 그중에서도 최초의 문학 창의도시인 에든버러 Edinburgh와 최초의 영화 창의도시인 브래드퍼드 Bradford의 사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도시는 문화 주도의 '지역혁신 체계'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들이라는 점이다. 지역혁신 체계란 국가혁신 체계의 구성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도시-광역 단계에서 혁신을 위한 코어 그룹과 혁신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상호 학습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성과를 도시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이 이루어질 때 구축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도시가 각각 '문학'과 '영화' 분야에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한 방식은 사뭇 달랐다.

에든버러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국민 작가인 월터 스콧에서부터 『셜록 홈스』의 작가인 코난 도일이나 최근에는 『해리 포터』의 J. K. 롤링 등 세계 문학사에 기록될 유명한 작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산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도시 곳곳의 물적 인프라와 연계해 정비하면서, 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창의도시 브랜드를 구축했다. 페스티벌의 도시답게 세계 최대 북 페스티벌인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을 통해 매년 전 세계의 유명 작가와 출판 관계자들을 끌어모아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자극을 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브래드퍼드의 경우 인구와 자원도 적으며, 에든버러에 견줄 만한 역사적 성취도 충분치 않았다. 대신, 브래드퍼드의 (문화 주도)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등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영화 제작자로 활동해온 스티브 애봇Steve Abbott이었다. 그는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가입 준비 과정에서부터 선정 후 10년 넘게 브래드퍼드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대변하는 혁신 리더로 기능했다. 그는 브래드퍼드를 영화도시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으며, 대학과 기업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지역 및 중앙의 공공 행정가들을 설득하고 연결함으로써, 브래드퍼드의 창조적 잠재력에 대해 함께 학습하고 꿈을 꾸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를 향하여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를 꿈꾸는 성남시는 어떻게 '미디어 아트'를 매개로 한 활력 있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성남시가 최근 진행한 유관 활동들의 규모와 다양성은 다른 도시들에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도시의 미디어 아트 분야 성과와 잠재력을 한편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창조성과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들과 연결하면서, '동시대성' '상호 작용' '민주적 소통' '탈경계'라는 가치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일반 시민 크리에이터'에서부터 '전통적 의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작가군'과 '게임·콘텐츠 전문 창작집단'을 경유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 연구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지역혁신 체계의 핵심 주체들을 충분히 넓게, 그리고 조화롭게 호명한 것도 바람직한 접근이다. 최근의 활동들과 성과들을 본다면, 충분한 증거에 입각한 계획이자, 지역적인 효과와 국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이라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앞으로 보완한다면 더 좋을 부분도 있다. 상당히 많은 배점이 걸려 있는 지역적 이니셔티브 initiative와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다소 추상적으로



1929년 문을 연 브래드퍼드 플레이하우스 앤드 필름 시어터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 공간이다

3) https://en.unesco.org/creative-cities/content/join-network

지역혁신 체계의 단계적 발전 과정

1

혁신리더와 코어 그룹

지역혁신의 필요에 공감하고 나아가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과 소명을 가진
리더 및 코어 그룹의 부상

2

혁신 네트워크와 상호학습

코어 그룹을 넘어 지역혁신에 공감하는 전문가 및
지역 대표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학습 진행

3

혁신의 제도화 및 자기 증폭

혁신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제도화되면서
혁신체계의 인프라 및 가치사슬이
지역사회의 참여와 함께 작동

4

혁신의 추인과 선순환 구조

혁신성과 도출에 대한 내외부 인정을 바탕으로
탄탄한 선순환 구조 성립

출처: 정종은, 강이수, 홍성태, 한설아 (2018)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2

1 성남시의 미디어 예술 적용 분야인 드론 쇼
2 'AR 어반 뮤지엄 성남'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모습

제시된 면이 없지 않으니, 왜 해당 이니셔티브가 중요한지, 각각의 이니셔티브는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 등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제시된 계획들, 즉 시민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창의인재 생태계 조성',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예술 융복합의 '성남 미디어 아트 랩 크리에이터 실험실' 운영, 도시 환경 자체를 '창의적인 미디어 아트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제시된 계획들, 즉 '포스트디지털 메타버스 미디어 아트 포럼' 주도, 성남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연대' 운영, 스마트도시와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문화 기여의 실증적 모니터링 수행' 등의 경우 국제 무대에서 소외되어온 국가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화도시 사업이나 창의도시 사업이나 그 궁극적인 성공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소망하며 동참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소수의 관심자 및 이해 관계자들만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얻는다면, 그 지향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운동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성남시의 계획에도 담겨 있듯이, '모든' 시민의 창조성을 주목하고, 지지하고, 견인하고, 표현하게 돕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성남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글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학부에서 미학과 종교학을, 석사 과정에서 미학과 미디어경영학을, 박사 과정에서는 문화산업 정책을 전공했다. ㈜메타기획컨설팅 부소장을 역임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거쳐 현재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 문화도시 컨설턴트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부미술품 운영위원, 문화영향평가 전문위원, 한국예술경영학회 연구기획위원장, 원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W.A. Mozart
2022. 10. 29. Sat. 4:00 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구 성남시민회관)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시야장애석 1만원 입장 연령 | 8세 이상 문의 | 031-783-8000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매력 있는 디자인을 찾다

우산 속에서

연일 비, 비, 비. 오늘도 우산을 챙겨야 한다.
골프 우산은 무겁고
2단 접이 우산은 폈다 접었다, 물이 튀어서 불편하고
명품 우산은 비에 젖을까 봐 안 되겠고
역시 일회용 비닐우산이 좋겠다.



조선 시대의 종이우산, 국립민속박물관

나만의 우산

어렸을 때에는 비닐우산을 많이 썼다. 대나무 자루에 여러 갈래의 댓살이 붙어 있고 그 위에 파란 비닐을 덮은 것이다. 10원쯤 했던 것 같다. 싼 가격만큼 허술하게 만들어져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펄러덩 뒤집히면서 비닐은 찢어지고 우산살도 부러져 버린다. 우산대를 꼭 붙들어봤자 헛일, 비를 쫄딱 맞고 만다. 낙하산이 되었다고 킥킥대지만 젖은 몰골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여덟 살 무렵이었나? 할아버지께서 어디선가 그럴듯한 우산을 하나 사 오셨다. 보통은 비닐이 파란색인데 이 우산은 투명한 흰색에 약간 두툼했다. 우산대와 살의 연결 부위도 야무져 보였다. 보통 우산대는 대나무 마디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아 울퉁불퉁한데, 이 우산은 대가 비교적 매끈했고 약간 굵었다. 20원쯤 했던 듯.

이 우산을 쓰고 골목으로 나서면 투명한 비닐 막을 통해 비에 젖은 호박꽃도 보이고 멀리 미나리꽝도 보인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표정도 읽힌다. 비가 오면 우산 너머의 바깥을 더 유심히 보게 된다. 할아버지께서 벼루에 먹을 갈아, 작은 붓으로, 우산대에, 내 이름을, 한자로 써주셨다. 비가 내리면 할아버지께서는 대충 아무 우산이나 들고 나가셨지만,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땐 내게 양해를 구하고서 그 우산을 빌려 쓰고 가셨다. 내 전용, 내 소유, 나만 쓸 수 있는 우산! 늘 나눠 쓰고 같이 쓰고 물려 쓰던 시절에 나만의 우산이 있다는 것은 자존감까지 한껏 북돋워주는 사건이었다.

이동식 아지트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첫사랑의 에피소드로 우산이 등장한다. 고등학생 현수는 학원 앞에서 비를 맞고 가는 은주를 따라가며 우산을 씌워주고 싶지만 수줍음에 계속 머뭇거린다. 어느 순간 은주가 갑자기 현수의 우산 속으로 뛰어 들어온다. 둘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 현수가 먼저 내리면서 우산을 은주에게 주고 비를 맞으며 뛰어간다. 여기서의 우산은 현수의 공간이자 분신이다. 현수는 우산을 볼 때면 은주가 우산 속으로 뛰어 들어왔던 그때의 기억을 화석처럼 간직하고 있을 게다.

1964년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쉘부르의 우산>에서는 우산이 감미롭게 표현되어 있다. 이 영화는 쉘부르(셰르부르)에 있는 우산 가게가 배경이라는 점 외엔 우산과는 별 상관도 없다. 우산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우산 쓴 남녀 주인공이 포스터의 스틸 컷으로도 사용되었다. 오프닝 영상에서 또 우산이 등장한다. 알록달록한 십각형 우산들이 비 내리는 포도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은 없지만 이마를 마주 대고 걸어가는 우산들에서 어릴 적 불렀던 동요가 떠오른다. 아름답고 순수했던 시절, 첫사랑의 아련함을 우산으로 은유한 어른들의 동화다.

인간은 넓게 개방된 공간에서는 폐쇄된 장소를, 안온하고 고립된 장소에서는 개방된 공간을 열망한다. 열린 공간은 자유롭지만 대신 노출되어 취약한 상태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 금세 또 모험이 시작될 것 같은 열린 공간을 꿈꾼다. 그래서 안전과 모험의 경계인 창문이 발명된 것일지도 모른다. 우산에도 창이 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물이 마구 떨어지는데 우산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한 손으로 우산대를 잡은 채, 또 한 손으로 우산살이 모여 있는 곳을 힘껏 밀어올리면 둥근 지붕이 펼쳐지며 이내 아늑하고 평온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와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내 자리에 그를 들이는 것이다. 은밀함을 만끽하기엔 우산만 한 것이 없다. 우산은 연인들이나 다정한 사이를 더욱 긴밀하게 결속시켜준다. 우산을 펼치면 이동식 아지트가 생긴다.

호사와 취향

우산의 기원은 동서양이 별로 다르지 않다. 우산雨傘의 원조는 양산陽傘인데, 傘은 비나 햇빛을 가리는 차양 막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에서 유래했다. 햇빛을 가리니 양산이고 비를 막으니 우산일 뿐이다. 영어의 경우, 양산(parasol)은 '태양을 막다(para+sol)'라는 뜻이며, 우산(umbrella)은 '그늘·그림자(umbra)'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기원했다.

우산이든 양산이든 파라솔이든 엄브렐러든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 위한 도구지만 초기에는 상류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기원전부터 중국에서는 우산(양산)이 지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가죽이나 깃털, 실크 등의 고급 소재가 사용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비가 오면 비교적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종이우산을 썼다.

18~19세기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양산을 패션 소품으로 활용했다. 모네의 〈양산 쓴 여인〉은 바람 살랑대는 화창한 언덕에서 양산을 쓰고 있는 여인(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을 그린 것이다. 인상파 화가답게 '빛의 인상'을 잘 포착한 그림이지만, 양산이 여성의 호사품임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된다. 남편의 명망을 자랑하고 신분과 세련된 취향을 드러낸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70년대에는 양산을 쓰고 다니는 부인이나 처자들이 많았다. 햇빛이나 비를 막아주면 되는 것이었지만, 부유함이나 취향도 드러내야 하므로 알록달록하게 자수를 놓거나 레이스로 장식된 것들이 많았다. 양산은 개화기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패션 소품으로 꾸준히 애용되었기에 여성 전용이라는 고정 관념이 생겼다. 우산은 방수용 천에 살이 길지만 양산은 부드럽고 화사한 빛깔의 천에 살의 길이도 짧은 편이다. 우산은 기능성에 충실하며 양산은 상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

종이우산이 중국에서 유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우산이 만들어졌다. 대나무 자루에 가는 댓살을 방사형으로 돌려 박고 방수와 내구성을 위해 종이 막에 기름을 발랐다. 이후 천으로 된 우산과 비닐우산 등으로 발전하면서 종이우산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만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우산

오늘날의 박물관 방문객들은 전시 관람 외에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찾는다. 그중 하나가 기념품 구입인데, 박물관 기념품은 방문 경험을 환기시키는 물건으로 선물용품으로도 인기다. 공예품, 복제품, 패션 소품 등으로 실생활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방물장수의 보따리에서 나온 듯한 온갖 물품들이 심리적, 정서적 즐거움을 준다. 그냥 상품이 아니고 '문화 상품'이다.

25년 전쯤, 박물관 기념품으로 우산을 디자인했다. 한글 자모(ㄱ, ㄹ, ㅓ, ㅠ 등)를 패턴화하여 천에 염색한 것이다. 우산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듯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생산 업체가 주문 수량이 5,000개 이상이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 반응을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재고가 쌓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포기하고 대신 한글을 활용한 넥타이나 스카프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외국 박물관에서 개발한 기념품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뉴욕현대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의 우산이 눈에 띄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이 프린트된 것이었다.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이미지를 기념품에 프린트하여 고흐를 연상시키는 한편, 미술관의 대외 홍보도 겸하고 있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림이 우산 겉면이 아니라 안쪽에 프린트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통 우산의 장식이나 꾸밈은 천의 겉면에 하기 마련인데, 엉뚱하게 안쪽에 있는 것이다. 덕분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우산을 펼치면 색다른 감흥에 빠질 수 있다. '별이 빛나는 밤'이나 '푸른 하늘', 자랑이나 과시를 위해 썼던 양산과는 달리 나를 맑게 해주는 우산이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1



2

1 한글 자모를 활용한 우산
2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프린트된 MoMA의 우산



여러 번 사용하는 일회용

현관 신발장 안에 예닐곱 개 이상의 우산이 있다. 자동차 트렁크에도 두어 개, 사무실 귀퉁이에도 두어 개. 골프 우산에서부터 2단 접이 우산, 유명 브랜드의 명품 우산, 투명한 비닐우산 등. 주인이 따로 없으니 내키는 대로 들고 나가면 된다.

우산은 이제 흔해 빠진 물건이다.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는 것이 책이라지만, 빌려준 우산이야말로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 것, 네 것이라는 개념도 없고,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쟁탈전도 없다. 더욱이 비 그치면 순식간에 천덕꾸러기 신세다. 쓰지 않고서 들고 다니는 우산처럼 성가신 게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이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대체 불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세월 동안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된 우산이 등장했지만 전통적인 우산을 온전히 대체할 물건이나 서비스는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급한 대로 일회용 우산을 구입한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살에 투명한 비닐이 덮여 있다. 엉성하지만 과거의 대나무 비닐우산과는 비교가 안 되게 훌륭하다. 일반 우산은 사용 후 잘 말리지 않으면 퀴퀴한 냄새가 남지만 비닐우산은 재질상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뭐가 묻어도 물로 한번 헹구면 그만이다.

투명해서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진로를 알 수 있고, 비닐 막 위로 쪼르르 구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으니 빌려주기에 주저됨이 없고 비가 그친 뒤, 어디엔가 놔두고 와도 심히 안타까울 것도 없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데 생각보다 잘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일회용이라 했는데 벌써 몇 번이나 쓰고 있는지….

글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


© shutterstock

여기선 물질, 저기선 비물질로 재미 보자

컴퓨터로 여행하는 또 다른 세계

디지털 시대, 새로운 영역이 자꾸 떠오른다. 어차피 하나에만 올인하면 위험하거나 답답하기에 오늘도 여기저기 알아보며 쏠쏠한 재미, 한껏 맛본다.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다섯 번째 모습은 바로 컴퓨터다.

아날로그 상비니: 가는 길을 즐겨!
디지털 상비니: 갔는데?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혁신적인 운영 체제, '윈도우95'가 나오며 마우스로 이미지를 클릭하는 방식이 대중화되었다. 말 그대로 또 다른 '창'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이제는 쓰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누르세요.

1995년, 대학에 갔다. 그리고 내 방에 컴퓨터를 영접했다. 드디어 첫 과제! 우선, 컴퓨터 설치 기사분께 지침을 받은 대로 능숙하게 컴퓨터 전원을 켜고 '훈민정음'이라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었다. 다음, 독수리 타법으로 모음, 자음을 열심히 눌러 일사천리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연결된 프린터로 프린트를 했다. 와, 완성!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니 그땐 좋았다.

그런데 다음 날, 문서를 제출하다 바로 교수님께 지적받았다. 폰트가 너무 크니 줄여서 다시 뽑아오라는 것이었다. 억, 이걸 다시 치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당시 컴맹의 비애다.

시일이 지나 조별 과제에 참여했다. 각자의 분량을 작성하여 디스켓에 파일을 담아 와 학교 컴퓨터실에서 취합하기로 했다. 그사이 컴퓨터에 능숙해진 나, 그렇게 했다. 조원들이 모이자 '한글'이라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내 파일만 찾을 수 없었다. 이걸 어쩌지? 참 미안했다. 이게 다 프로그램에 따라 고유의 확장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당시 컴맹의 비애다. 아, '훈민정음'과 '한글'은 다른 세계구나! 하필이면 나만 다른 세계에 있었네.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행정병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아리랑'이라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당시까지도 난 독수리 타법. 선임이 말했다. 6주 후 첫 외박을 나가려면 장문 560타가 넘어야 해. 그래서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했다. 그리고 목표를 초과 달성해 단문은 1,000타를 넘기도 했다. 아, 그래서 지금 내가 숨 쉬듯이 워드를 치는구나. 탁탁탁, 탁탁 탁탁… 어, 벌써?

군대에서는 컴퓨터로 작전 요도를 그리는 업무도 맡았다. 자연스럽게 컴퓨터 그림에 입문한 것이다. '아리랑'이라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미대 출신이라 칭찬 많이 받았다. 온갖 종류의 단축 키를 스스로 설정하고 현란한 기술로 활용하는 모습, 요즘으로 치자면 프로게이머 정도의 포스가 아니었을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한 시대

1999년, 제대하고 복학했다. 당시엔 세기말 분위기가 팽배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특기부 선생님께서 1999년 9월 9일 저녁 9시에 세상이 망하니 그날 저녁 7시에 초등학교 정문에서 만나 마지막 만찬을 하자고 하셨더랬다. 이를 기억하던 나, 정말 나갔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만났다. 그래서 둘이 저녁 먹고 헤어졌다. 아, 선생님….

1999년, 영화 <매트릭스>가 개봉했다. 충격이었다. 디지털 세상이 열렸구나. 도저히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나도 디지털로 뭔가 해보고 싶었다. 중고등학교를 예술학교에 다니며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그림을 그려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다.

사진 수업이 있던 날, 아날로그 카메라로 찍은 필름을 암실에서 현상하는 과제를 망쳤다. 다음 날이 스튜디오 크리틱인데 어떡해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캐너! 그때까지 사용해본 적은 없었지만 컴퓨터에 일가견이 생긴 나, 바로 용산전자상가로 향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스캐너를 설치하고 망친 사진을 스캔했다. 내 생애 첫 경험! 결국, 조작 미숙으로 스캔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진을 들었다. 모니터에 뜬 왜곡된 이미지! 그야말로 환상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에 홀려 밤새 사진을 스캔하며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 내 손이나 얼굴을 스캔하기도 하면서. 그 광경을 찍었다면 참 희한한 퍼포먼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난 스캐너 아티스트가 되었다.

2001년, 첫 개인전을 했다. 전시명은 'Analogital'! 여기서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되며 왜곡되는 현상을 표현했다. 그때 쓴 서문은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는 선언문과도 같았다. 이는 미술 월간지 <아트인컬처>에 원문 그대로 실렸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제작한 한 영상 작품의 제목은 'Digilog'였다. 여기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관계를 뒤집어 살펴봤다.

난 1976년에 태어났다. 사회적으로는 X세대로 분류된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날로그적으로 살다가 대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접했기에.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에서 샌드위치가 되었다. 따라서 'Analogital'과 'Digilog'는 내게 잘 맞는 주제였다. 즉, 난 둘 중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할 수 있다고! 아니, 둘은 하나라고!

‘이분법’의 마력에 취하는 세상

그런데 ‘둘은 하나’라니, ‘둘은 둘’이구나. 대립항의 관계 설정 속에서 하나도 되고 둘도 되는. 생각해 보면 ‘이분법’은 상당히 간편하고 효과적인 사고의 한 방식이다. A와 B를 상정하고 A가 B보다 크다든지, 아님 좋다든지, 혹은 옳다든지, 그런데 알고 보니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며 논리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현대 철학자들은 ‘이분법’의 해악에 주목했다. 이는 세상을 양분하는 무지와 폭력성에 대한 경고였다. 세상은 이보다 훨씬 난해하고 심오하다는. 복잡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요? 아이고… 혹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요? 흑, 노 답.

물론 이런 예라면 격렬하게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분법’ 자체가 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양, 얘를 의인화해서 마녀 사냥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면 좀 지나쳤다. 아니, 얘는 애초에 죄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용하려는 사람이 문제지…. 그리고 얘는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사상의 알고리즘이라고요. 극단적으로 얘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갈라치기를 하며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 때에 따라 상당히 요긴해요. 그래야 나뭇가지가 쭉쭉 뻗으며 자라날 수 있죠. 자, 사자가 나타났다. 싸울래요, 도망칠래요? 1초!

결국,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감독, 혹은 지휘자로서 필요한 분석과 종합, 그리고 활용 능력이다. 이를테면 디지털은 0, 1이다. 어, 깔끔한 ‘이분법’이네? 반면에 아날로그는 0, 1 사이에 끊기 애매한 무수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관계! 즉, 피아노에서 도는 도, 레는 레다. 반면, 바이올린은 그 사이가 공명한다. 혹은, 세상을 절대 음감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이거다. 한편으로 상대 색감으로 보면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서 뭐가 맞을까? 아이고, 맞긴 뭐가 맞아.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 도대체 언제 커?’와 ‘너희 아이 언제 이렇게 컸어?’ 둘 중에서 누가 맞을까? 물론 관점에 따라 둘 다 맞다. 우리 아이는 ‘선택과 집중’, 너희 아이는 ‘여유와 간헐’에 기반하기에. 즉, 맨날 보면 안 크는 것 같다. 한편으로 가끔 보면 그사이 쑥 자란 것 같다. 당연한 말씀.

결국, 오랫동안 집중하거나 가끔씩 돌아오는 ‘이분법’, 살면서 적절히 활용하면 그만이다. 작업을 하며 몰아붙일 때면 쉴 새 없이 해보자. 혹은, 권태기가 찾아오거나 벽에 부닥치면 훌훌 털고 여행 가자. 훗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 법한 일도 잘 풀리곤 하나니. 즉, 때로는 ‘선택과 집중’, 혹은 ‘여유와 간헐’을 택하기. 좋은 일이다.

다른 예로, 모범생과 일탈생! 전자는 주변에 빛과 소금이 되는 반면 후자는 그런 거 다 까먹는다. 여기서 한 사람이 꼭 둘 중 하나만 택하라는 법은 없다. ‘이분법’은 상대적으로 선택지를 나누는 ‘음양법’이지, 무조건 하나만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니니까. 즉, 어떨 땐 모범적이고 다를 땐 그렇지 않은 게 사람이다. 뉴스를 보면 살인범의 이웃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의외다’라는 인터뷰를 종종 한다. 아이고, 아니었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인 거죠. 결국, 안 보이는 거 안 보거나 용기 내어 보기, 다른 의미에서 다 중요합니다.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한 사람만 택하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다. 이를테면 부캐의 시대, 여러 명이 다 잘날 수도 있다. 내 경우, 사진 작업은 디지털적이고 회화 작업은 아날로그적이다. 전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완전 깔끔하게 무결점으로 보이는 ‘환영적 비물질감’에 집중하고, 후자는 물감과 붓으로 완전 끈덕지게 별의별 자국을 남기는 ‘촉각적 물질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둘이 꼭 같아 보일 필요도 없다. 즉, 내 작은 아이 중 한 명은 사진 작가, 또 다른 한 명은 회화 작가다. 물론 다른 작가들도 많은데 현재는 둘이 제일 부각된다. 우선은 둘 다 잘되기를! 아, 글 작가도 있구나. 미안…

그럼 다른 아이들은? 물론 ‘이분법’보다 ‘다분법’을 활용하면 더욱 복잡한 사상 여행,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 그런데 ‘다분법’ 마법을 잘못 사용하면 머리에 부하가 걸린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선은 초급 마법, ‘이분법’ 내공을 잘 마스터하여 대위법적 퀀텀 점프로 재미 보며 살자. 참고로 중급 마법, ‘삼분법’은 충분히 영위하며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고급 마법의 세계로 쉽게 진입할 수도. 마법은 죄가 아니다. 잘하면 축복.

글 **임상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

2022성남의 얼굴전

위로

강순자
김신주
박춘화
박현미
송 창
안진희
안치홍
안현곤
조은희
조창환
주선영
최승애
홍영이
황현숙

2022.
10.28 (금)
–
11.27 (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www.snart.or.kr,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031)783-8142~9

사랑과 죽음의 중첩

영화 <헤어질 결심>과 말러의 아다지에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웃음)."
올해 프랑스 칸 영화제 공식 기자 회견장에서 박찬욱 감독의 답변을 듣다가 슬며시 미소가 나왔다. 그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칸에서 첫 선을 보인 직후였다.

'청소년 관람 불가'가 대부분이었던 전작들과 달리 <헤어질 결심>은 영화 <올드보이>의 핏빛 흥건한 폭력도, <아가씨>의 짙은 성애性愛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는 작품에 대해 "길고 지루하고 구식의 영화"라고 말했다. 겸손함과 장난기 섞인 소개처럼 박찬욱 특유의 얼얼한 '매운맛'이 사라지고 '순한 맛'으로 변한 것만 같았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감독은 "다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폭력과 성애가) 있으면 '왜 있느냐'고 하고 반대로 없으면 '왜 없느냐'고 질문하시니"라고 하소연해서 전 세계 취재진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실제로 국내 개봉 때에도 '15세 관람가'를 받았다.

정작 기자 회견에서 인상적이었던 답변은 따로 있었다. "사실 그 곡을 쓰고 싶지 않아서 오랫동안 도망 다녔다"는 선곡에 얽힌 사연이었다. <헤어질 결심>에서는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가 주제가처럼 계속 흐른다. 루키노 비스콘티의 <베니스에서의 죽음>부터 한국 영화 <청연>에 이르기까지 스크린에서 유독 사랑받는 선율이기도 하다.

박찬욱은 한국 영화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클래식 애호가다. 익히 알려진 선율을 다시 사용하는 부담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헤어나고 싶어도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당시 그는 "편집과 어울리는 무드가 있어야 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이 곡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헤어질 결심>의 감독도 정작 말러와는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셈이다.

말러의 선율이 감독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사랑과 죽음이 연신 교차하는 영화 전체의 '유도 동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4악장 아다지에토는 작곡가가 아내 알마에게 보내는 연가戀歌로 해석되지만, 거꾸로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1968년 장례식 이후 추모 음악으로도 자주 연주된다. 말러의 교향곡 자체에도 사랑과 죽음의 모순된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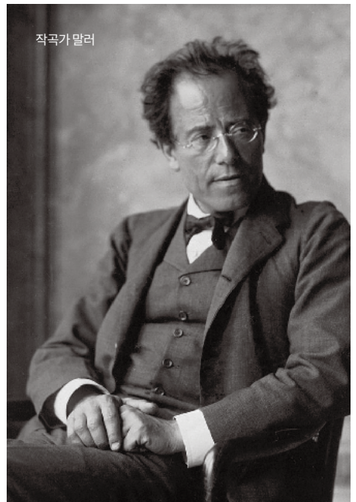


헤어질 결심2022
감독 박찬욱
출연 박해일, 탕웨이 외

영화는 산 정상에서 추락한 중년 남성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 해준(박해일)이 사망자의 중국인 아내 서래(탕웨이)를 의심하는 미스터리 형사물에서 출발한다. 잠복 수사와 신문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진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형사와 용의선상에 있는 여성 사이에 감정적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설정은 고전 누아르 영화를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 <헤어질 결심>은 누아르와 로맨스의 장르적 결합에 가깝다. 전반의 누아르와 후반의 로맨스가 맞물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구조다. 그 둘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면 물론 사랑일 것이다. 누아르에서 남성은 언제나 치명적 여인에게 이용당하지만, 반대로 로맨스에서는 여성이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 둘의 결합을 통해서 영화는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

박 감독은 스웨덴 범죄 소설 '마르틴 베크' 시리즈와 영국 고전 영화 <밀회Brief Encounter> 등을 영향받은 작품으로 꼽았다. 마르틴 베크는 연인이자 동료 작가 마이 셰발과 페르 발뢰가 1965~75년 공동 집필한 10권의 연작 소설에 등장하는 스웨덴 범죄 수사국의 형사다. 범죄 소설의 세밀화細密畵를 연상시키는 정밀한 묘사, 하드보일드적 세계관이 투영된 간결한 단문, 사회 비판과 풍자를 곁들인 유머 감각까지 아우르는 독특한 스타일 덕분에 이들은 '북유럽 누아르Nordic Noir'의 창시자로도 불린다. 북유럽 특유의 감정적 절제나 대조적 성격의 형사들이라는 설정은 <헤어질 결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르틴 베크'가 영화의 누아르적 면모를 설명한다면, <밀회>는 그 이면에 놓인 로맨스에 대한 암시가 된다. <밀회>에서 여주인공 내면의 격랑을 대변하는 선율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박찬욱에게 말러가 있었다면, <밀회>의 감독 데이비드 린에게는 라흐마니노프가 있었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의 후반부로 갈수록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작품이 있다면 단연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일 것이다. 안개라는 배경, 등장인물들의 대사, 무엇보다도 김수용 감독의 1967년 영화 <안개>의 주제가 선율을 통해서 『무진기행』에 대한 오마주를 강하게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작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돌아보면 <박쥐>부터 <아가씨>까지 금지된 사랑은 박찬욱의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사랑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헤어질 결심>의 파도는 <박쥐>의 햇빛을 뒤집은 것일지도 모른다. "언제나 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전면에 드러난 것"이라는 박 감독의 말도 그제야 비로소 실감이 났다.


작곡가 말러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바이블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CJ E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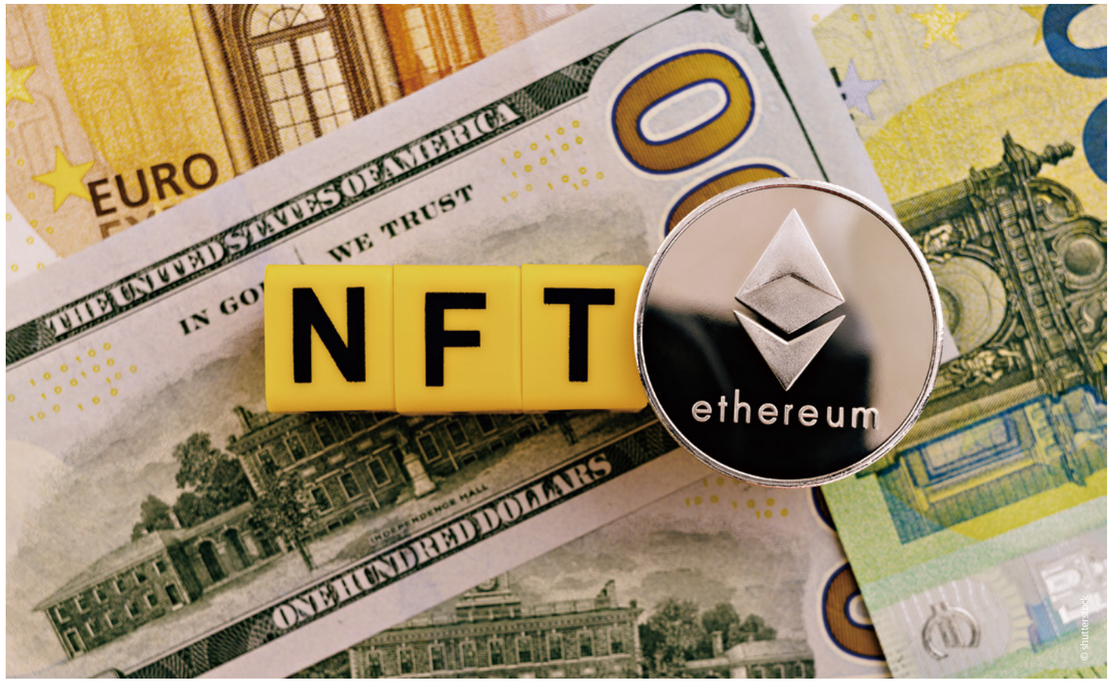
분석은 꼼꼼히, 투자는 신중히

실전 투자: 분할 소유, 공동 구매, NFT 이해하기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작품의 매매만이 아니라 투자 가치를 반영하는 상품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처음 미술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고가의 작품 구매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품 선택에 확신이 없거나 보관이 부담스러운 분, 가격이 올랐다 해도 어디에 팔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점을 보완해서 등장한 것이 분할 소유입니다.

피카소 작품 가격은 앞으로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르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카소 작품을 사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비싼 작품을 조각으로 나눠 판매하는 것이 분할 소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자를 수는 없고, 어떻게 나눌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조각의 소유자 모두에게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래 내역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알려지는 거죠. 누군가 해킹을 시도한다 해도 해당 거래 관련자 전원의 자료를 전부 해킹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한 회사가 분할 소유 사이트를 만들어서 1억 원짜리 작품을 1억 개 조각으로 각 1만 원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죠. 1조각이든 100조각이든, 얼마를 살지는 자유입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되고, 회사는 고객에게 작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작품의 옥션 기록, 주요 전시 경력 등을 계속 알려주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정보를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1조각을 1만 원에 산 고객이 사이트에 1만1,000원으로 재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주식처럼 분할 소유 플랫폼 회사 내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1억의 작품을 시간이 흐른 뒤 1억2천만 원에 판매한다면 그 수익금은 고객과 나누게 됩니다. 만일 1억5천만 원이 되면 50%의 수익률이니,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투자처란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분할 소유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조각으로 작품을 판매할 때 일정 마진을 포함시키는 한편, 구입 고객이 그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론 작품 보유 중에 대여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죠. 이렇게 소액 투자로 일정 기간 뒤 고객과 회사 모두 수익을 내는 이상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 작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둘째, 작품을 오른 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운영 경비+@의 수익이 생성되어야 하죠.

몇 년 전, 한 분할 소유 회사가 유명 외국 작가의 10억 원대 작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와 강남에 작품을 전시할 쇼룸, 프로그래머와 큐레이터 등 10여 명의 직원까지 준비를 마쳤죠.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쇼룸에서 열린 멋진 오프닝 파티를 시작으로 분할 소유 고객들은 언제든지 쇼룸을 방문해 작품을 볼 수 있었고 거래도 활발했죠. 두 번째, 세 번째 작품들도 100% 판매되고 작품가도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이익이었습니다. 작품의 총 자산 가치가 50억 원 정도인데, 직원 급여와 쇼룸 및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기타 행사 비용을 충당하기엔 거래 수수료, 즉 수익 자체가 너무 적었던 거죠. 결국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경우 투자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에는 회사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 구매는 분할 소유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 소유는 회사가 작품의 선정·운영·판매를 진행하는 반면, 공동 구매(아트 펀드)는 투자 회사가 고객을 모아 큰 금액의 펀드를 조성한 뒤 직접 혹은 대행사를 통해 작품을 운영합니다. 2007년 즈음 몇몇 금융사에서 70~100억대 펀드를 운영했던 사례처럼, 자금 규모가 크고 투자자들도 큰 금액을 투자합니다. 보통 3~5년 정도 운영한 뒤 투자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죠. 투자 기간이 길고, 어떤 작품을 선정해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집니다. 2007년 당시의 아트펀드 수익률은 평균 3%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 전문가가 아닌 투자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 다른 미술 전문 운영 업체에 작품 구입·판매를 위탁해야 하고, 긴 운영 기간 속에서 작품에 따라 가치 상승 폭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작품 선정이 투자 수익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해 주식 펀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암호 자산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암호 자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100년경에 4천1백만 개로 채굴이 끝난다고 알려진 비트코인BitCoin이지만, NFT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ETH와 관련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암호 자산은 처음에는 디지털 화폐로 기대하다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주식처럼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매도자가 많아지면 내려가는 방식인데, 365일 24시간 시장이 돌아가고 너무 많은 암호 자산들이 생겨나면서 등락폭이 하루에 몇십에서 몇백 배를 오가는 고위험 투자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정된 수량, 최초의 암호 자산이라는 타이틀로 암호 자산계의 '달러'라 불리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는 무한정 채굴(어려운 연산 문제 등을 풀면 코인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려는 사람이 많더라도 채굴량이 많으면 가격 상승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를 사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거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는 NFT입니다.

복제가 쉬운 디지털 아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가가 원하는 특정 작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인증한 뒤, 그 작품을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해 '이더'로 사고팔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거래한다면 '이더' 유통이 증가하고 가치도 상승하리라 기대한 거죠.

NFT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오픈씨, 라리블, 민터블, 메이커스플레이스 등이 있고 국내에는 엔에프팅, 그라운드X, 업비트, 코인플러그, 위메이드트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거래소가 미국의 오픈씨(opensea.io)입니다. 오픈씨 사이트에는 NFT 작품이 가득한데요, 예를 들어 <CryptoPunks>라는 작품을 사기 위해서는 신용 카드가 아닌 가상 화폐 이더ETH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를 구입해야겠죠? 현금을 이더로 바꿀 때와 오픈씨 사이트 내에서 거래할 때 모두 각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NFT 작품을 사려면 이더를 사야 하니 가상 화폐의 유동성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작품을 살수록 이더의 가치도, NFT 작가의 작품 가치도 함께 상승하니 일거양득이겠죠.

NFT가 디지털 아트의 진위에 대한 인증으로 디지털 아트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지, 암호 자산을 활용한 또 다른 사용처로서의 성향이 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 자산의 가치 하락과 함께 NFT 시장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면 현재는 후자와의 연관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미술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투자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정보와 경험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보시면 어떨까요.

글 **김종현** 아트디렉터, Artdotz 대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뉴욕 킵스Kips 갤러리 부디렉터, 퀸스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ARPNY의 디렉터2013-2015를 거쳐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일했다. 귀국 후 아트부산2016 아트디렉터 등 다양한 미술 행사 진행은 물론 미술 시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상명대학교에 출강하며 해외 공모전 및 전시 전문 플랫폼 Artdotz를 운영하는 한편,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상하이의 일상을 변화시킨 건축의 힘

스타트 뮤지엄부터 탱크 상하이까지

Shanghai

상하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젖줄, 황푸강. 20여 년 전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천지가 개벽했다'며 감탄했던 상하이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황푸강의 푸둥 지역 신시가지에 위치한 동방명주 TV 방송탑은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타워로서 국제적·경제적으로 그 위상이 크게 부상한 이 도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하이를 다시 찾는다면 문화적으로, 또 도시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랄지 모른다. 그 중심에는 황푸강 상류의 서쪽 강변 일대, '웨스트번드West Bund, 西岸' 혹은 '쉬후이 워터프런트'라 불리는 지역이 있다.

© shutterstock

© shutterstock

상해의 스카이라인



높이 새롭게 올라가는 건축물과 재생건축을 통해 완성되는 공공 공간이 조화를 이뤄 상하이만의 특유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웨스트번드 개발 계획은 문화와 환경 친화성을 지향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 조성과 문화 기획 전략이 조화를 이루며 종합적으로 추진됐다

드넓은 오픈 스페이스와 풍부한 수로망을 갖추고 있는 황푸강은 100년 넘게 중국 물류 산업과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곳으로, 많은 국유 기업과 산업 기지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중국 최초의 대규모 공항이자 민간 항공의 탄생지였던 룽화 공항, 청나라 시대에 처음 건설돼 1980년대에는 부두 기능까지 갖추었던 상하이 난푸 철도역, 동중국 지역 에너지 수송의 중심이었던 베이파오 워프, 최초의 습식 공정으로 시멘트를 제조했던 상하이 시멘트 공장, 처음으로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대형 민간 항공기를 생산했던 상하이 항공 제조 공장까지, 황푸강변에는 중국 근대 산업의 주요 역군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화적 요소를 바탕에 둔 쉬후이 워터프런트 계획

세월이 흘러 2010년, 상하이시는 황푸강의 양 강변을 대상으로 하는 '황푸강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한때 이 지역을 호령했던 공장과 산업 시설들은 폐쇄됐고, 동시에 쉬후이 워터프런트는 상하이의 '제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서도 논의되고 있었다. 쉬후이 워터프런트의 설계는 독일의 함부르크항과 영국의 카나리 워프에서 영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시에서는 황푸강에도 파리 센강의 좌안Rive Gauche, 런던의 사우스뱅크와 비견되는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장소를 기획하고자 했으며, 쉬후이 워터프런트가 바로 그 중심이었던 것이다.

쉬후이 워터프런트 개발은 4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계획에 기반을 둘 것(planning-based), 문화를 지향할 것(culture-oriented), 친환경적일 것(eco-based), 기술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할 것(technological-innovation-driven). 이 재개발 계획의 중심이 되는 8.5km의 강변이 황푸강 북쪽 둑에 해당하는 곳으로 상하이 코니시Shanghai Corniche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와이탄과 푸동 지구, 세계 엑스포 행사장 일대를 포함해 광범위한 재도시화 전략이 추진됐는데, 상하이시는 수명을 다한 산업 시설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공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장소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리고 2011년 말 열린 제9회 쉬후이지구 당대회에서 '웨스트번드 문화거리West Bund Culture Corridor'라는 공식 명칭이 선언되기에 이른다.

2010 세계 엑스포는 웨스트번드 지역 개발의 중요한 기회가 됐다.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면서 상하이시는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 계획과 디자인 공모를 추진했으며 상하이 코니시 일대에 약 85만 평의 공공 용지를 확보했다. 웨스트번드 문화거리는 대규모 스케일의 도시 공공 공간으로서 구상됐고, 황푸강 일대는 근대 산업이 집적된 공간에서 시민들을 위한 열린 장소로 파격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갔다.

그렇게 웨스트번드 개발이 진행되며 쉬후이강변을 상하이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되돌리는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완성돼갔다. 그 결과 점차 이곳에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강변의 환경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중국 주거 환경상'을 수상했으며 상하이 국제 마라톤의 '가장 아름다운 러닝 코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개의 시대가 공존하는 공공 디자인

웨스트번드 개발 계획은 문화와 환경 친화성을 지향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 조성과 문화 기획 전략이 조화를 이루며 종합적으로 추진됐다. 따라서 그 목표는 세계적인 수준의 워터프런트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의 문화예술 지구를 형성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그 결과 웨스트번드 뮤지엄West Bund Museum, 웨스트번드 아트센터West Bund Art Center, 룽 뮤지엄Long Museum, 유즈 뮤지엄Yuz Museum, 스타트 뮤지엄Start Museum, 탱크 상하이Tank Shanghai, 상하이 사진 센터Shanghai Center of Photography, 워터프런트 시어터Waterfront Theater 등, 다양하고 또 새로운 문화 시설들이 차례로 건설되며 웨스트번드의 풍경을 바꿔 나갔다. 상하이시는 이에 더해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통신·미디어 기업들이 모여 있는 웨스트번드 미디어 포트West Bund Media Port,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와 랜드마크로 구성된 스마트밸리Smart Valley, 금융 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함께 조성했다. 이로써 웨스트번드 지역은 문화 산업, 첨단 기술 산업, 창조적 금융 산업이라는 3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진 중심 업무 지구를 형성하며, 근대 산업이 집적된 공장 지대에서 현대 중국의 신산업이 꽃피는 새로운 터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 웨스트번드 문화거리를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시설 대부분이 옛 근대 산업 공간을 활용하고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 속에서 만들어졌다. 먼저, 이 새로운 문화거리의 중심이 되는 웨스트번드 아트센터는 상하이 항공 제조 공장 건물을 활용한 것이다. 내부는 2개 층으로 나뉜 전시 공간과 강의실, 회의실 등을 갖추어 예술·패션·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를 유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한편, 1923년에 세워져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상하이 시멘트 공장은 중국의 유명 건축가 류이춘에 의해 웨스트번드 드림센터의 돔으로 리모델링되

기도 했다. 두 공간 모두 규모나 장르 면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현대미술의 특징을 고려해 설계함으로써 상하이가 '아시아 미술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물리적 거점이 되고 있다.

지역의 관계성을 담다

웨스트번드 문화거리의 시작 지점이 되는 난푸 철도역 자리에는 스타트 뮤지엄이 들어섰다. 설계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 서울의 리움미술관, '사막의 장미'라 불리는 광석을 닮은 카타르 국립 박물관, 최근에는 아부다비의 루브르 분관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문화예술을 담은 건축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단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자리한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건축 디자인에 잘 녹여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상하이의 스타트 뮤지엄 역시 그러한 장 누벨의 노하우가 십분 발휘된 작품이었다.

무엇보다도 난푸 철도역은 상하이의 근대 산업화 역사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상징적 장소였다. 장 누벨은 미술관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난푸 철도역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배치와 선로, 열차 차량 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장소가 가지는 역사를 재건하고자 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건물의 면적과 높이를 유지하는 한편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든 것이었다. 미술관의 옥상에 해당하는 이곳은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웨스트번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망할 수 있다. 예술·문화·자연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는 도시 풍경을 실감하고, 예술과 시민들의 일상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 건축가의 바람이 담긴 공간이었다.

절묘한 조화 속 새로운 창의

유즈 뮤지엄은 상하이 룽화 공항의 오래된 격납고를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기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부디 텍Budi Tek이 일본 건축가 후지모토 소와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로, 2014년에 완성된 이후 상하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부상했다. 건축가는 유즈 뮤지엄을 설계할 때 기존 격납고의 구조와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전시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빛이 잘 드는 통유리로 창을 내고 주변에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미술관 안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끼게 했고 동시에 상하이의 눈부신 야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그 밖에 비행기 격납고 문을 보존해 공연 행사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기억을 존중하고자 한 건축가의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진다. 그 결과 유즈 뮤지엄은 옛것과 새것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과거의 건축과 현대의 건축이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퍄오 워프는 중국의 사업가이자 미술 수집가 류이첸과 왕웨이에 의해 룽 뮤지엄으로 재탄생했다. 건축가 류이춘과 함께 작업한 이 뮤지엄 역시 2014년에 오픈했다. 류이춘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석탄을 실어 나르던 110미터 길이에 8미터 높이의 다리를 보존하고 아치 모양의 우산을 연상시키는 구조를 활용해 건축물의 벽을 세웠다.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이 '아치 우산'은 기존 부두 건물의 구조 안에 매립돼 다양한 방향에서 관람객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콘크리트 벽의 물질성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단순한 공간 형태는 전체 미술관 건물이 산업 유산으로서 역사를 이어 나가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재생건축, 문화예술을 향유하다

마지막으로, 오픈 아키텍처OPEN Architecture가 이끈 아트 프로젝트인 탱크 상하이가 2019년에 개관했다. 버려져 있던 거대한 탱크 5개를 현대미술 센터로 탈바꿈시킨 이곳은 서울의 문화비축기지와도 그 외관과 역사가 닮았다. 룽화 공항이 폐쇄된 이후 항공 연료를 보관하던 이 탱크들은 계속 방치돼 있던 상태였는데, 쉬후이 구청과 아트 컬렉터 차오 지빙이 투자해 대대적인 복합문화단지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기존의 석유 탱크 외관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탱크 내부는 갤러리와 각종 공공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건축가는 이 공간이 최대한 개방되고 접근하기 쉬우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장소가 가진 산업 역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도시와, 또 사람들의 일상과 분리·고립돼 있었던 장소의 경계를 허물기를 원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 디자인의 중심은 건축물과 주변 경관을 Z자 모양으로 잇는 거대한 초지다. 탱크 상하이는 완만하게 기운 초지가 각각의 탱크들을 감싸며 거리와 강변으로 이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다. 나무와 잔디로 이루어진 이 길은 5개의 탱크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면서 이 장소가 가진 여러 가지 기억이나 역사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2개의 탱크는 위쪽, 나머지 3개는 약간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사람들이 탱크의 저층부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



1,2 웨스트번드에 위치한 룽 뮤지엄의 전경과 입구
3 룽 뮤지엄은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과 어우러져 시민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1 기존 탱크의 곡선을 살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완성한 탱크 상하이. 이곳에서는 혁신적인 전시를 선보이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2 탱크 상하이 내부 공간



각의 탱크로 들어가는 입구는 기존 탱크의 곡선 구조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돼 있다.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조성해 지하 공간으로 햇살이 들어오도록 하고 방문객들이 계절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깥 공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탱크 상하이를 찾는 사람들은 전시나 공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의 다채로운 경관 속에서 조깅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의 디자인은 단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포용성을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에 없이 개방적인 형태의 미술관 공간은 원래 문화예술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이곳을 찾는 유인이 됐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 상하이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던 미술 시장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배경에는 웨스트번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자본력 위에 화려하게 세워진 현대미술 플랫폼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유명한 건축가를 앞세워 트렌디한 공간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아트페어를 유치해서 이룬 명성이라면 그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의심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웨스트번드의 비전과 전략은 도시 역사와 구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에 앞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성장할지 상하이의 '두 번째 천지개벽'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일 테다.

글 **김지나** 작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연구원, 아트센터나비 등 다양한 곳에서 문화 전반을 다뤘다.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역문화가 활용되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조경학 석사와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문화로 도시 읽기』가 있다.

성남문화재단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2 마티네 콘서트

MUSIC FROM THE FAIREST ISLE

2022년 3월~12월(총10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0월 20일(목)
유럽 음악 산업의 중심, 런던

하이든 / 교향곡 93번 D장조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 건반협주곡 D장조, Op.1, No.6, WC54
드보르작 / 교향곡 7번 D단조, Op.70, B.141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정나라
피아노 김태형

11월 17일(목)
끊이지 않는 음악 컨퉁, 메시아

헨델 / 메시아 하이라이트

★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지휘 김선아



• SEONGNAM •

BEYOND

66 예술가의 작업실
경계에 서서, 경계를 허물다
차승언 작가

72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76 캘린더



SEUNGEAN CHA

경계에 서서, 경계를 허물다

차승언 작가

차승언 작가는 베틀로 짠 캔버스 속에서 새로운 회화의 영역을 탐구한다. 씨실과 날실의 정교한 교차가 빚어내는 '직조'와 '회화'의 결합 속에서 작가는 과거와 현재, 환영과 물질, 예술과 공예 사이의 미세한 틈을 포착하고 재구성한다.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11월 4일부터 관객을 만나는 2022 성남중진작가전 3 <차승언 : 아버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를 앞두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학부에서는 섬유미술을, 대학원에서는 산업공예를, 유학 시절에는 회화를 공부하셨습니다. 섬유미술과 산업공예가 지닌 나름대로의 연결성과 달리 회화의 경우 결이 다른 분야라 느껴지는데요, 당시 회화를 새롭게 공부하기로 결심하신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요?

대학 공부의 시작이 1993년이고 회화를 공부한 것은 2007년이니 벌써 정말 오래전 선택이 되었네요. 당시를 떠올려보자면 염색과 직조, 태피스트리, 섬유조형, 텍스타일 디자인 등 섬유 영역의 재료를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했던 시간들은 물론 유의미했지만, 제 생각을 좀 더 즉물적·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싶다는 바람이 꾸준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해답으로 회화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글쓰기, 그리기, 노래하기, 달리기는 배움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장착된 본능이니까요.

이전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유학 시절이 처음 기대하신 것과 조금은 다른 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를 벗으려 찾아왔는데 또 다른 경계로 들어섰다"고요. 그런 간극을 벗어나시게 된 전환점이 있었는지요?

드로잉, 페인팅, 바느질 작업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많이 정돈하고 나니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미술의 역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앞서 언급했듯 글쓰기, 그리기, 노래하기,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치열한 학습과 정교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마땅한 일이기도 해요. 좋은 작품을 볼 때, 아름다운 노래나 연주를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잘 훈련된 운동선수를 볼 때 기쁜 까닭이기도 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갈고닦아 성취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고, 저 역시 제가 선택한, 혹은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공부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초기 작업에서는 실을 매개로 한 설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작업이 점차 베틀로 짠 캔버스 속에서 회화를 구현하는 '직조 회화'의 형식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작업이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하고 싶은 작업이 많아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직조 회화를 이야기하려면 실 설치 작업의 시작으로 거슬러 가야 하는데요, 당시 회화를 공부하면서 점점 이전 방식으로 작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선 하나 긋기도 조심스러웠지요. 오랜 시간 섬유를 다루다 보니 캔버스가 페인팅의 도구나 지지체라기보다는 섬유라는 물질로 먼저 인식되곤 했어요. 이 캔버스가 평직으로 짜였는지 아니면 능직인지, 마천인지, 면천인지 관찰하며 회화가 실어 나르는 내용과 함께 물질로 존재하는 오브제로서의 캔버스도 함께 다루고 싶었죠. 그래서 종이, 천, 비닐, 와이어, 실 등 갖가지 재료로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옷단을 꿰매는 투명 실 모노필라멘트를 제 스튜디오 양쪽 벽을 지지해 1cm 간격으로 4m를 수평 설치했는데, 재료와 시각성, 작업 과정이 서로 잘 부합하더군요.





1

공간을 수직 혹은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이 투명한 캔버스를 건물 안팎에 설치하면서, 회화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미세하게, '약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모노필라멘트는 낚싯줄보다 얇고 그 자체로 숨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숨기 위해 태어난 재료를 드러낼 때 마주하는 역설적 상황도 나타났죠. 이 작업에서 직조 회화로의 이행 과정을 보면, 공간에 설치한 실은 형식 측면에서는 직조 메커니즘에서 힘과 구조를 견디는 텐션tension을 지닌 날실(세로실)이 됩니다. 내용 면에서는 직조 회화 역시 환영과 물질, 아카데미 예술과 공예 사이에 자리하는 미세한 층을 건져내려는 태도를 담아 이전과 같은 결로 작업했어요.

섬유와 회화, 공예와 순수 미술 모두를 경험하신 점이 결과적으로 이후의 창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느끼시는지요?

젊음은 불안과 동거하는 시간이지요. 선택지는 많은데 확신은 없으니까요. 히브리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 사이에 중간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선택을 후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주어진 물질과 시각성에 대한 익숙함과 의심, 그리고 다시보기의 과정을 통해 '0'의 자리에서 편견 없이 분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듯싶습니다. 수동과 능동 사이 어느 화합의 지점 '중간태'를 유지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한국과 서구의 근대 추상미술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과거 미술사의 어떤 간극과 틈이 작가님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님께서는 어떤 답을 찾아가고 계신 과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속 성장의 그늘은 미술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 맥락 없이 이식된 근대화가 흐름을 주도할 때,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시사는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지요. 저는 미술사 안에서, 미술 형식에서 지나쳤던 것들, 거기 있었지만 호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는 작업에 관심이 가요. 직조기 안에서 날실과 씨실로 캔버스를 직접 짜면서 미술사와 회화의 역사를 담고, 규방 공예와 여성의 노동을 함께 엮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남성의 거대한 추상 회화와 여성의 소규모 규방 공예의 높고 낮음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성자, 아그네스 마틴, 리처트 터틀 등 선대 미술가들을 작업에 참조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 대상을 선택하시는지요? 또 모티프가 된 작가들 외에도 영감을

WEAVING AND PAINTING



2



3

1, 2, 3 차승언 작가의 작업실. 작가는 도구로서의 캔버스가 아닌 캔버스가 지닌 물성 자체에 주목하며, 섬유예술의 작업 방식인 직조를 통해 회화를 표현한다

받으신 당대의 예술가들이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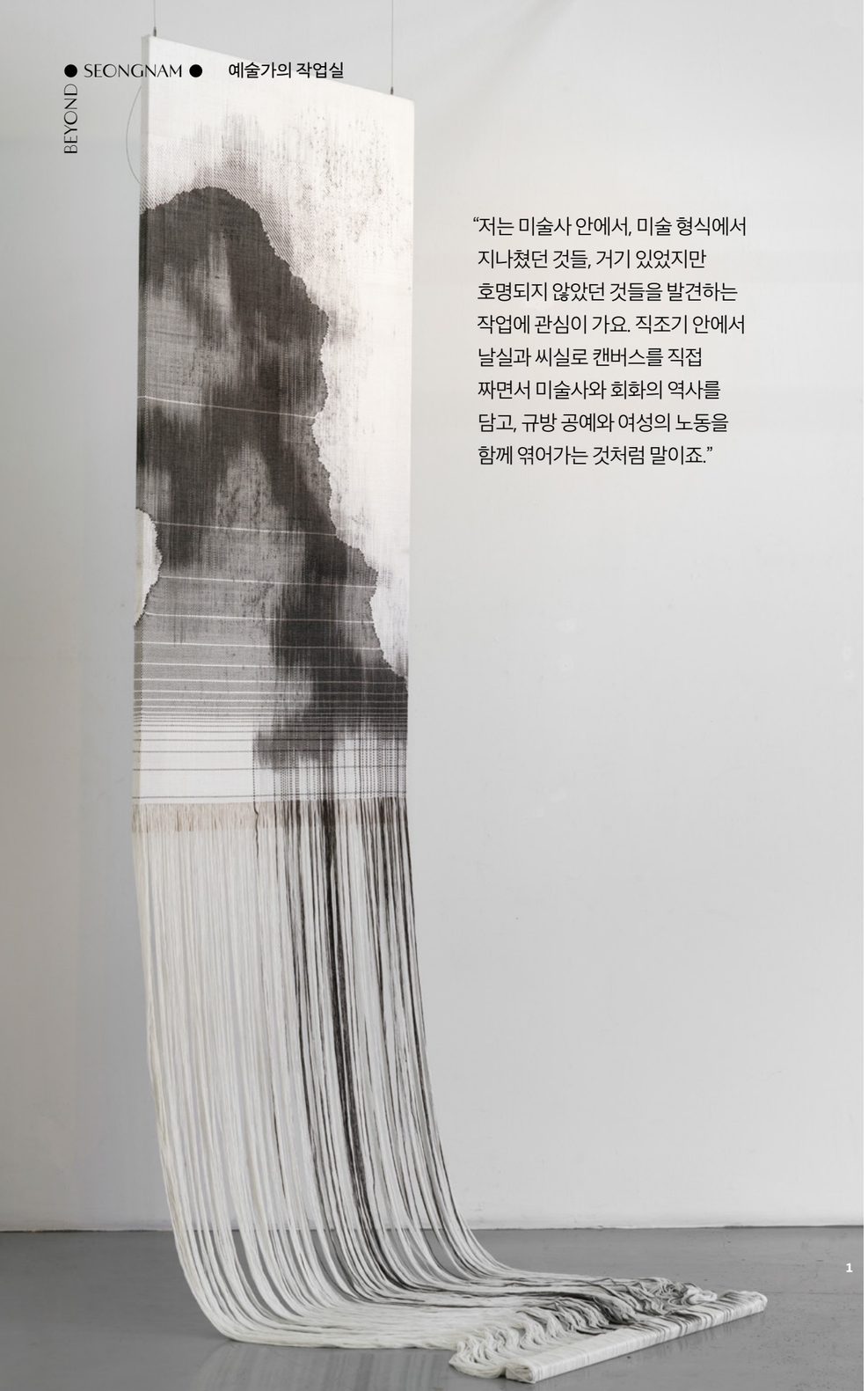
어떤 작가나 작품을 기존 미술사의 정의와는 다르게 바라볼 때 그 작가를 불러오기도 하고, 작가의 작품 도출 과정이 흥미로울 때 그 방법을 따라가보기도 해요. 2018년에는 바우하우스Bauhaus와 블랙마운틴 칼리지Black Mountain College 교수였던 애니 알버스와 조세프 알버스 파운데이션The Josef & Anni Albers Foundation 레지던시에 다녀왔습니다. 애니 알버스Anni Albers, 1899~1994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매체를 실험하면서 직조와 추상의 경계를 허문 거의 최초의 작가인데요, 그곳에서 알버스의 직조법과 재료 사용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우하우스에서 미학적 경험을 담아낸 픽토리얼 위빙Pictorial Weaving을 통해 어떻게 직조를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살펴보는 한편, 그녀가 사용했던 1930년대의 제작 베틀로 작업 기회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죠.

"직조는 만든 이의 시간이 온전히 드러나는 작업이다. 하나의 수행과도 같은 직조는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작업 수단이자 목적이다"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조'라는 행위가 작가님을 매혹시킨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개념이나 묵상이 반복·지속·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과정이 쌓이면서 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죠. 갈등의 에너지가 커서 작업에 진척이 없을 때라도, 직조는 어찌 되었든 처음과 끝이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틀 앞에 앉으면 결국 결과물이 나와요. 거기서 오는 고마움이 있어요. 흔들의자 타듯 복잡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면 결론을 얻기 힘들 때가 많은데, 베틀이라는 용광로에 앉아 있으면 고민과 생각이 시간으로 쌓여서 답을 말해주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실이라는 소재의 물성, 직조 방식이나 패턴에 따라 무한히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최적의 표현을 위한 실험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원하시는 표현 방식에 충분히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좋은 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생각을 구현하기 적합한 환경이라 다양한 실험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직조했을 때 캔버스라고 여겨지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화처럼, 때로는 직물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직조 회화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도를 그린 뒤 패턴을 정하고, 그에 맞는 실(주로 면사, 폴리에스터사, 인견사 등)을 찾아서 작은 크기로 먼저 직조해봅니다. 그 느낌에 따라 조직이나 재료를 바꾸기도 하죠.



1

"저는 미술사 안에서, 미술 형식에서
지나쳤던 것들, 거기 있었지만
호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는
작업에 관심이 가요. 직조기 안에서
날실과 씨실로 캔버스를 직접
짜면서 미술사와 회화의 역사를
담고, 규방 공예와 여성의 노동을
함께 엮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1 <Triple Twill Triptych>, cotton yarn, polyester yarn, dye, 455x97cm, 2019
2 <Segment-26>, rayon yarn, polyester yarn, acrylic paint, 145.5x97cm, 2022



2

11월 4일~12월 25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성남중진작가전의 세 번째 순서로 작가님의 개인전을 만나게 되는데요.

내년이면 제가 성남에 산 지도 30년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웃, 지역공동체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성남에서의 개인전이 한층 각별해요. 전시 제목은 <아버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 *Your Majesty. Circles, triangles and squares are yours too.*>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작업한 직조 회화를 돌아보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직조 회화의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다양하게 전시해 가까운 이웃들, 또 관객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성남중진작가전>을 통해 저 역시 신작은 물론 지난 작업을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여겨볼 작품이나 감상하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대로 편안히 감상하시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제작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제작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세로실을 염색한 후 직조한 형식의 작품, 직조 후 아크릴 페인팅을 진행한 작품, 캔버스를 이루는 천의 구조를 변화시킨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색 후 직조한 작품은 뿌리기, 그리기, 칠하기, 번짐 등 추상 회화 속 얼룩이 지닌 즉흥성과 신화를 참조해서 제작했습니다. 염색으로 얼룩을 만들어서 참조해 태피스트리 기법으로 직조한 작업입니다.

직조 후 아크릴 페인팅을 더한 작업은 캔버스 안에서 물감이 표면에 얹히며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직조가 만들어내는 섬유의 이미지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직조된 캔버스가 늘어지거나 서로 가로지르고, 때로는 입체가 될 수도 있게 직조한 작품을 나무 프레임과 연결한 작업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며 회화에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회화를 이루는 재료와 형식, 표면, 방법 등도 감상할 수 있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제작 연도를 살피면서 초기작과 근작의 직조 기술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작업 과정 중 정체되거나 지치는 순간이 온다고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그런 순간 속에서 리프레시가 되는, 혹은 좋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어떻게든 겪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산책도 좋아하고, 청소나 정리정돈, 혹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의 작업 외에 새롭게 영감이나 자극을 받고 계신 부분,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 넘게 투병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그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의식하지 못한 새 생각이 변하기도 해요.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우선 마음대로 편히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두 번째로는 섬유미술의 형식들을 참조한 방법과 모양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사진 **최재우**

차승언

학력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학사 졸업1999 홍익대학교 산업공예 석사 졸업2002 시카고 예술대학 회화과 석사 졸업2010 **개인전** Wall Hangings(Gallery 021, 대구), 흐트흐트 위반의 기술(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인천)2019 +Ebony+Ivory+(온그라운드, 서울) 2018 외 **그룹전** Spinning East Asia Series II: A Net (Dis)entangled (Center for Heritage Arts and Textile, 홍콩),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On and Around Table (팩토리2, 서울), 공예, 낯설게 하기 (롯데갤러리 잠실점, 서울), 관계의 재구성 (아뜰리에 아키, 서울)2022 외 **레지던시** SEA Foundation, Tilburg, 네덜란드2020 인천아트플랫폼2019 The Josef and Anni Albers Foundation Artist in Residency, Connecticut, 미국2018 외 **수상 및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 레지던시 참가 지원2020, 2018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 지원2018 재능문화재단 JCC 프론티어 미술대상 우수상2017 외 **소장** 성남큐브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외



성남미디어센터, 다시영화제 & 경기필름스쿨 페스티벌 개최

성남미디어센터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가을의 문을 연다. 영화학교 학생들의 창작물을 선보이는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2022'(9월 30일~10월 2일, 총 상영작 32편), 청년영화기획단과 함께 기획·운영하는 '성남다시영화제'(10월 2일~3일, 총 상영작 10편)에서 총 42편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먼저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GFSF 2022'는 경기 지역 영화학교(9개 대학, 4개 고교) 학생과 교원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영화제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7월 경기영화학교연합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번 페스티벌을 후원하게 됐다. 성남미디어센터는 페스티벌 개막 파티, 학생영화 9개 작품을 지원하는 'GFSF 2022+성남미디어센터 제작지원 피칭&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경기 지역 영화학교와 해외 영화학교의 우수작을 성남미디어센터에서 무료 상영하고(10월 1~2일), 독립영화 스트리밍 플랫폼 무비블록에서도 선보인다(~10월 9일).

'성남다시영화제'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2편, 단편 8편 상영과 함께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영화제는 10월 2일 <족구왕>을 시작으로(오후 7시 30분 큐브플라자 2층 야외 원형광장), 판교무비위크 지원작과 계원예고 학생들의 작품 등 성남 청년들이 제작한 영화(10월 3일 오후 1시), 다양한 역경을 겪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영화 4편(10월 3일 오후 4시)을 큐브플라자 미디어홀에서 상영한다. 상영 후에는 영화별 관계자를 초청해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꿈을 위해 멈추지 않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프란시스 하> 상영으로 영화제를 마무리한다(10월 3일 오후 7시 30분, 큐브플라자 2층 야외 원형광장).

'성남다시영화제' 상영작은 모두 상영 일주일 전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snmedia.or.kr)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2022성남중견작가전3 차승원

아버지. Your Majesty. Circles, triangles and squares are yours too.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

2022.11.04 FRI – 12.25 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큐브미술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 - 19:00 | 문의 031-783-8142



나의 예술, 우리의 예술: 성남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네트워킹 사업 진행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재단은 9월 16일(금) 오후 3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강당과 22일(목)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2층 야외공간에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예술인 네트워킹 사업 - SN문화예술 '동행'>을 진행했다.

1차는 '우리의 예술 이야기'란 주제로 청년부터 원로예술가까지 자유롭게 소통하며 협력 작업 및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했고, 'SN예술 살롱파티'로 진행한 2차 간담회는 지금종 군포문화도시지원센터장과 성남문화원 김정진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와 지역 예술단체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서로 소통하며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CHLOE JIYEONG MUN PIANO RECITAL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Scriabin, Schumann and Scria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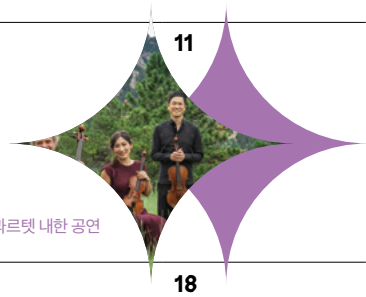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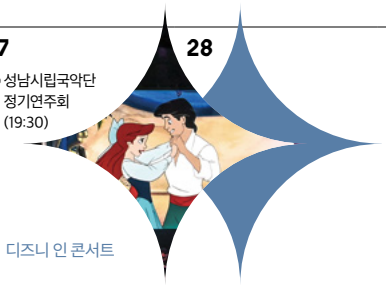


2022년 11월 25일(금)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www.snart.or.kr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미디어홀 Ⓐ성남아트리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성남문화재단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1** ㉥ 2022 변진섭 전국투어 콘서트 (17:00) ㉤ 예그리나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 1도 몰라도 즐기는 가족 클래식 시리즈 <동물의 사육제와 영화음악> (15:00)
2 ㉦ 성남문화예술제 연극제 (15:00)	**3** ㉤◊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17:00)	**4** Ⓐ◊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하는 타카치 콰르텟 내한 공연 (19:30)	**5** ㉤ 아미쿠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 제36회 성남무용제 (19:30) Ⓜ◊ 독립예술영화관 <나를 만나는 길> (19:00)	**6** ㉥◊ 디즈니 인 콘서트 (19:30)	**7** ㉤ 하이테크밸리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19:30)	**8** ㉥ 트롯전국체전:소확행 (18:00) ㉤ 베누스토 분당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 HOPE / 희망 (17:00)
9 ㉥ 트롯전국체전:소확행 (14:00) ㉤ 블록버스터 영화음악 콘서트_성남 (17:00) Ⓐ 유해준 전국투어 콘서트 (18:00)	**10**  타카치 콰르텟 내한 공연	**11**	**12** Ⓜ◊ 무료예술영화관 <우먼 인 골드> (14:00) Ⓜ◊ 독립예술영화관 <완벽한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 (19:00)	**13** ㉤ 성남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19:30) ㉦◊ 성남청년예술축제 <창작뮤지컬 마이너리그> (20:00) Ⓐ◊ 청년예술가×오케스트라 프로젝트 (19:30)	**14** Ⓐ◊ 청년예술가×오케스트라 프로젝트 (19:30)	**15** ㉦◊ 성남청년예술축제 : 연극 <너는 빛이 되어 우주를 둥둥> (13:00)
16 ㉤ 소상공인 후원을 위한 다온오케스트라 콘서트 (17:00)	**17**	**18** ㉤ 2022 칸타타 레볼루션 (19:30)	**19** Ⓜ◊ 독립예술영화관 <매스> (19:00)	**20** ㉤◊ 마티네 콘서트 (11:00) ㉦ 계원예고 음악과 동문과 함께하는 클래식 시리즈 3 (19:30)	**21**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22** Ⓐ 세 여인의 바로크와 고전 이야기 (14:00)
23 ㉤ 서울시민교향악단 20주년 기념음악회(19:30)	**24**	**25** 	**26** 2022 마티네 콘서트	**27** ㉤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9:30)	**28**  디즈니 인 콘서트	**29** ㉥ 뮤지컬 민쩌미 <사랑해요 엄마!> (11:00, 14:00, 16:30) ㉤ 성남나눔콘서트-성남시장애인청소년과 함께하는 콘서트 (17:00) ㉦◊ 연극만원 <언택트 커넥션> (14:00, 18:00) Ⓐ◊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6:00)
30 ㉥ 뮤지컬 민쩌미 <사랑해요 엄마!> (11:00, 14:00) ㉦◊ 연극만원 <언택트 커넥션> (14:00, 18:00)	**31**					

갤러리808

전시명	전시기간
제1회 성남청년예술축제	10월 4일~10월 15일
RESTART - 탄천현대작가회	10월 17일~10월 26일
2022 성남아트페어	10월 27일~11월 5일
제36회 성남문화예술제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1월 8일~11월 17일
제36회 성남문화예술제 미술협회전	11월 29일~12월 8일

성남큐브미술관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2022 소장품주제기획전 <마음보양>	7월 22일~10월 23일	㉣◊ 상설전시실
지역예술가교류전 2	11월 11일~12월 25일	㉣◊ 상설전시실
<디지로그展 : 해방>	7월 15일~10월 2일	Ⓒ◊ 기획전시실
성남의 얼굴전 <위로>	10월 28일~11월 27일	Ⓒ◊ 기획전시실
2022 성남중진작가전 2 <유미영: 잇고 또 잇고>	8월 5일~10월 23일	Ⓑ◊ 반달갤러리
2022 성남중진작가전 3 <차승언: 아버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	11월 4일~12월 25일	Ⓑ◊ 반달갤러리

※ 전시 관람 시간 :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 휴관)